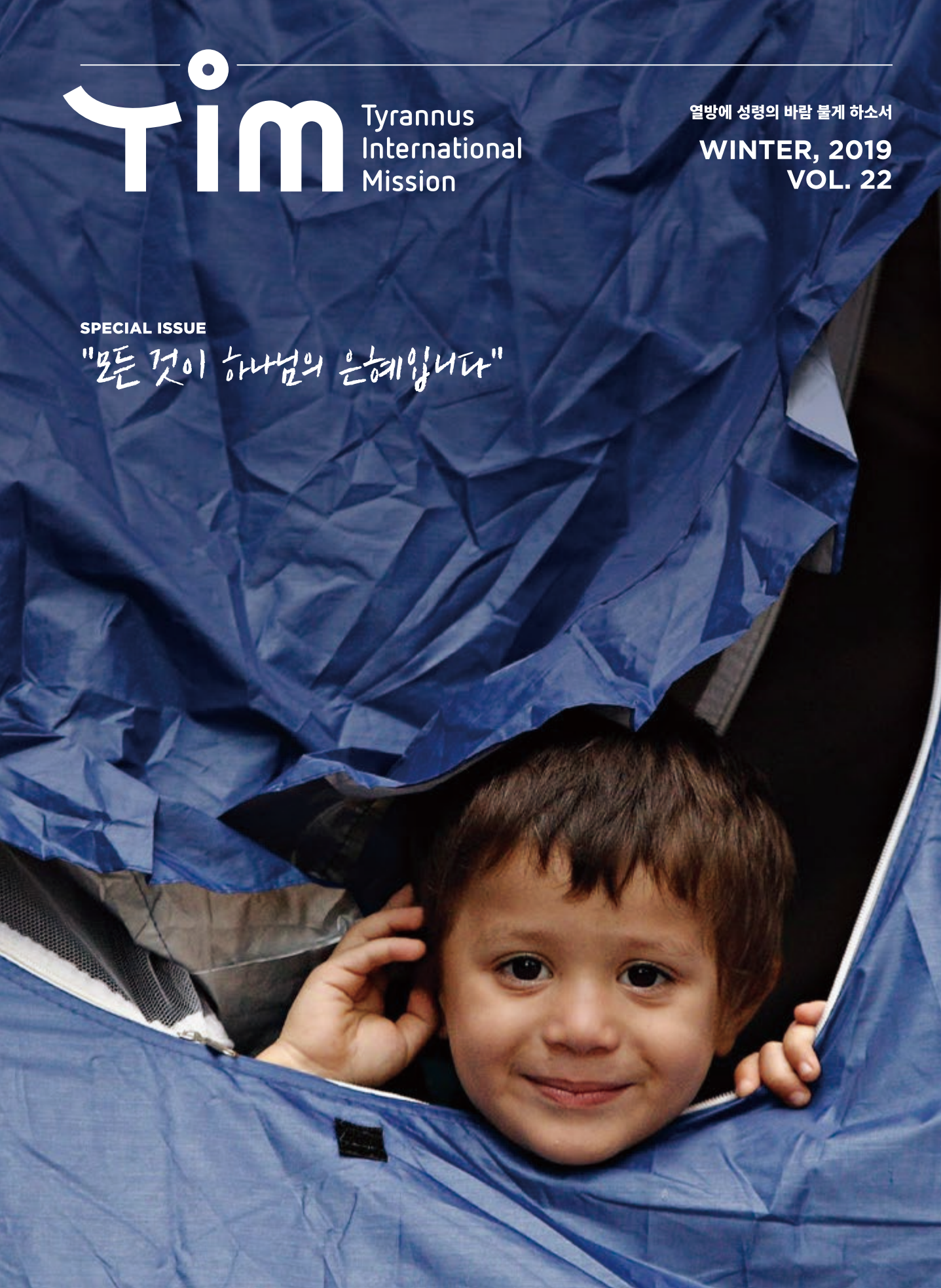


SPECIAL ISSU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TIM은 교회개혁과 전방개혁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6년 동안 진력해왔습니다.

현재 TIM은 53개국, 425명의 선교사(MK 146명)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IM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교회와 동역할 것입니다.



## SPECIAL ISSU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 열방에서

온누리융합선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 5  
나눔 선교사

오직 한 가지 소원 9  
갈렘, 에스더 선교사



### 전략회의 & 리서치

상반기 인터코디 컨설팅 in 대만 15  
김우, 이아브라함, 충성, 윤아골라 선교사

하반기 인터코디 컨설팅 in 아부다비 18  
제치운 선교사

지역별 전략회의 1  
인니/인도차이나 전략회의 21  
이아브라함 선교사

지역별 전략회의 2  
터키 연합집회 &  
소아시아, 페르시아(중앙아시아) 창 23  
손충성 선교사

터키 연합집회  
터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초석 26  
이영광 선교사

지역별 전략회의 3  
중동/북아프리카 28  
서요셉 선교사

온누리교회 융합선교  
일본 융합선교현황 및 전략 31  
신민호 장로

선교중국  
하나님의 손길 : 위기를 선교중국의 동력으로 35  
허드슨 선교사

난민사역 리서치  
난민,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 38  
윤아골라 선교사

난민융합사역  
난민사역 이야기 40  
김술람미 선교사

FA(Frontier Agency)  
FA사역지 변화와 지역에 따른 기대 44  
제치운 선교사



### 본부에서

TIM 훈련  
TRT, TCT에 대하여 48  
제치운 선교사

본부사역(Tim Rebuilder Training)  
TRT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50  
이려 선교사

TRT(TIM Rebuilder Training): 본국사역선교사 본부사역을 마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52  
이성희 선교사

TIM Church-Planting Training(TCT): 재생산하는 교회개척훈련  
장기 신임 선교사의 현장 적응 훈련 54

TIM Church-Planting Training(TCT): 재생산하는 교회개척훈련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60  
박미선 선교사

MK홈쿨링 인터뷰  
여호와가 주신 기업 63  
이자혜 선교사 인터뷰 / 홍명희 선교사

MK이야기  
홈쿨,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69  
김보라

MK이야기  
MK의 삶이란 무엇일까? 71  
이다니엘

TIM 은퇴 간사 인터뷰  
선교사들의 작은 쉼터, 선교사 숙소 74  
윤종희 집사 인터뷰 / 유진현 간사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라디미르 송 선교사

TIM 총무



2019년의 TIM의 사역의 시작은 선교지 환경들의 많은 도전들 가운데 시작 되었다. 인도, 네팔, 중국 등의 종교와 비자 정책을 통한 강한 핍박은 많은 선교사들을 사역지에서 선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떠나야하는 달허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물론 지금도 그 흐름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지난 수 세기 동안 견고한 진과 같은 곳이 열림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영역도 있었다.

“사방으로 우겨 씹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 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고후 4:8-10) 는 말씀의 고백처럼 매 과정들 속에서 많은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공동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11월 제주에서 갖은 온누리교회 선교컨설팅에서 선교리더십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 결의와 6월에 ‘멤버케어’를 주제로 다뤘던 KGMLF(Korean Global Mission Leaders Forum)를 통해 긴급한 도전들에 대한 학술적 확증과 공동체적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재무장의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떠남의 아픔과 더불어 사역지 가운데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영적상태,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기 어려웠던 부분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단체와 교회 공동체와 대화,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재무장의 기회가 되었다. '위기가 기회'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팀사역'과 '융합선교'(계획적, 전략적, team, 현지필요중심), '선교중국'의 그림 가운데 전략적 팀을 재구성하고, 함께 리서치를 다녀왔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사역지의 선임선교사들과 교제와 나눔, 교회의 사역 팀과 기관들에게 각 팀들의 비전과 미션과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지난 일본 선교를 되돌아보면서 사역 기관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일본융합선교포럼'을 갖으면서 서로 협력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연합 사역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오사카에 'TIM Japan' 사무실이 오픈되고, 선교의 동력과 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청년공동체와 2000선교본부, TIM이 함께하는 Frontier Agency(FA) 단기선교사들이 새롭게 오사카에 파송되어져 현지 일본 교회 속해서 언어와 문화적응, 교회사역을 통한 차기 일본선교 자원들로 준비되어지고 있다.

중동 무슬림의 근본적 변화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시리아 사태', 시리아인들의 고통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전방개척 영역으로서 '난민'을 보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1996~1999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종족 가운데 돌파가 이뤄지지 못했던 '쿠르드족'들이 가장 곤고한 중에 회심과, 교회개척,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과 TIM은 '융합선교'의 관점에서 선교사들의 재배치와 난민 사역을 위한 '난민사역벨트'를 지리적 관점을 떠나 영역적 관점에서 난민 사역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중동 무슬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FA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IMB와 함께 정책공유와 현장사역공유를 위한 모임을 3차례 갖았고, 각 지역에서는 본부 주도의 전략회의가 아닌, 지역코디네이터(Regional Coordinator)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동남아 무슬림권, 힌두불교권, 페르시아 창, 몽골, 일본 등에서 현장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선교사와 본부의 상호책무를 위한 월간저널

이 시대 가운데  
전방개척 영역으로서  
'난민'을 보게 하셨는데,  
가장 곤고한 중에  
회심과, 교회개척,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



(MJ:Monthly Journal)을 도입해서 지역코디네이터와 본부, 지역코디네이터와 전략적팀과 시범적 진행을 하였고, 202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모든 선교사들에게 확대해 갈 예정이다.

연초에 ‘변화의 시대’라는 글을 통해서 단체와 선교사들에게 다가올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렸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본부 조직과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2020년 TIM은 새로운 리더십, 지역에서 코디네이터와 전략적팀의 코디네이터의 변화, 개척되어진 새로운 영역의 정착, 사역과 인적 조정, 신규 선교사 자원의 동원, 법인으로서 출발, TIM의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가야하는 등의 많은 도전들을 예상하고 우리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새로운 한 해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 6:18)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온전한 단체로 성장해가는 TIM이 되도록 동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온누리융합선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

나훔 선교사  
대만

중국선교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에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인교회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1993년 결혼한지 한 달 만에 대만에 왔습니다. 처음 2년은 대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2000년 8월 서울에 있는 중국인교회의 파송을 받아 사역한지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 우선순위의 변화

중국선교를 위해서 중국어로 신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조언에 대만의 침례교신 대원에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만교회의 청빙을 받아 사역하던 때 온누리교회 바울 대학부가 4년에 걸쳐 여름, 겨울방학기간 아웃리치를 오면서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온누리교회의 DNA를 대만교회와 나누는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대만과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영국에서 참여하였다





대만 아버지학교 100번째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학교를 통해  
저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셨고,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2005년, 저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누리교회와 TIM의 협력선교사로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두란노아버지학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대만 기류의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던 K목사님의 요청으로 열떨결에 참석하게 된 아버지학교는 교회사역을 가정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습니다.

H목사님은 교회사역은 교인들에게는 축복이겠지만, 아버지학교는 대만의 교회와 가정, 나아가서는 모든 중국인을 축복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며, 아버지학교 사역을 권하셨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만 하겠다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2009년 아버지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학교를 통해 단순히 대만 혹은 중국대륙을 사역의 목표로 생각을 했던 저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셨고,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 같은 민족, 다른 나라 사역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지역, 중국인이 있는 곳에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과 두 민족이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민족성과 특성이 다른 두 민족의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홍콩, 상해, 소주, 북경, 하문, 성도, 온주 등과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중국인 아버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만에서 해외의 중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의 아버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의 아버지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대만 아버지학교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아버지를 섬기도록 하였고,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아버지학교가 준비되었을 때에는 호주와 유럽 등의 아버지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중국인이지만 살아온 환경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도 다름에 각 지역의 형제들을 연합하는 것이 힘에 부침을 자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기에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만 교도소 재소자들과 아버지학교

교회를 도와 가정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서로가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매 번 배웁니다.

###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성격의 사역을 하는 단체와의 협력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대만의 교도소 재소자들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드디어 2018년 교도소사역단체와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을 진행할수록 깨닫는 것은 '교도소 사역은 전문사역단체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돕는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도와 가정사역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최고야', '나 만이 할 수 있어'가 아닌 서로가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매 번 배웁니다.

지난 3월 교도소 사역은 어머니날의 행사에 맞춰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소자 중 한 명은 작년 어머니날 행사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발을 씻겨드릴 수 없음에 아쉬움이 크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이 형제가 출소를 하면 어머니의 묘에 같이 가서 묘비를 닦는 것으로 하지못한 어머니의 세족식을 대신하자는 아버지학교의 형제의 제안에 또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는 재소자들 대부분은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되면, 아내를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어지니 아내에게 진실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년 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젊은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유학 혹은 이민을 온 젊은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정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어떻게 가정을 경영해야 하는지, 자신이 삶으로 겪은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가정에 대한 강 의도 하고, 대화와 상담도 하면서 섬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과 불신자와 오랜 시간 교회의 문턱만 넘나들던 분들이 세례를 받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한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각 나라의 한국인과 중국인이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2019년 11월 '세계중국인 두란노아버지학교대회'를 대만에서 개최했습니다. 비록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서 많은 아버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른 각 나라의 중국인 아버지들을 연합하는 사역의 기초작업에 시동을 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간혹 '선교사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더욱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돕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으로 교회를 돕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가정이야기 그리고 기도제목

자녀가 존경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딸 예한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마음 한구석으로 소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한이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부모가 걸어 온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내내는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한이는 대만의 교회에서 1년간의 사역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한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갱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사역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하여 체력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면서 대화와 사역의 방향으로 인한 충돌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굳건한 체력, 관계와 사역가운데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으로  
교회를 돕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 오직 한 가지 소원



열방에서

갈렘, 에스더 선교사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95%가 불교를 신봉하는 소승불교국가로, 스님들은 캄보디아의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주도합니다. 신자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시주를 올리며, 아이들을 동자로 바칠 때는 머리를 삭발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은(교회 성도들조차) 집 앞마당에 '쁘레야 폼'이라는 작은 사당을 세워 가족을 지켜준다는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 섬김으로 시작된 선교 여정

우리 부부는 외국인 비전교회에서 캄보디아 유학생들을 섬겼던 것이 계기가 되어, 60살을 넘긴 나이에 장기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2년 5월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아침을 먹는 등 마

9

침례 후 기도하는 성도들





는 동 서둘러 학교 가는 길, 우리 부부는 암기한 단어를 서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렇게 수업을 복습하며 부지런히 가다 보면 등은 땀이 흘러 젖어 들고,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날씨에 지쳐갈 때쯤 에스터 선교사가 특특이(오토바이에 리어커를 연결한 콜택시)를 타고 가자 하지만 이것도 현지화 적응 훈련이라며, 거절합니다. 군인 출신답게 앞만 보고 전진하는 막무가내 남편이 얼마나 알밋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여러 장벽에 부딪칠 때마다 나이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는 현장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 3대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어는 자음 모음이 무려 100개가 넘고 유성음, 무성음 발음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상대방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갈렙 선교사는 오랜 군생활로 청력이 손상되어 듣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촉하고, 교제하는데 있어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딸 부부 또한 캄보디아에 전문인 선교사로 와 있어서, 당시 6살난 외손녀와 주말마다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녀의 고사리 손을 잡고 나가면, 사람들은 경계심을 금세 무너뜨리고, 쉽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갈렙 선교사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손녀는 발음을 정확히 듣고 할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었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전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 와서는 “할아버지 전도하러 가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손녀를 보며 선교의 피가 손녀에게 전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딸 부부는 현재 미국으로 이동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 와서는  
“할아버지 전도하러 가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손녀를 보며 선교의 피가  
손녀에게 전해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 기도와 응답으로 시작된 교회

2014년, 하나님은 선임 선교사와 함께 연합 사역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 동일하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해 여름, 강남B 공동체 아웃리치로 K마을 땅 밟기와 전도를 시작으로, 선임 선교사의 K마을 교회 개척 권유, 선임 선교사 가정 개척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의료선교(치과)를 오셨던 H장로님의 K마을 진료 희망 등 지속적으로 K마을로 마음과 사역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 개척을 간구하고 사인을 구했던 기도 응답이라 생각되어 우리 부부는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치과진료소식을 전하고 전기와 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장소를 물색할 겸 K마을로 향했습니다. 면장을 찾아가 면장 댁에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부탁했고,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진료 당일, 기꺼이



S교회의 시발점이 된 치과진료사역과 면장

이후로도 신뢰를 쌓으며  
교제를 이어오다  
드디어 2015년 1월  
면장 집 마당 원두막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 면장을 치료해 주면서,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면장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치료에 정신이 없었는지, 면장은 이 또한 쉽고 빠르게 승낙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신뢰를 쌓으며 교제를 이어오다 드디어 2015년 1월 면장 집 마당 원두막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붕을 엮고, 나무 평상 2개를 만들어 돛자리를 깔아 만든 아담한 원두막이 S교회의 첫 예배 처소였습니다. 면장의 홍보와 힘머리 가득한 나이트 외국인이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이 신기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첫 예배의 첫 헌금 2500리엘(한화로 약 720원)을 보며, 가난한 과부의 두 렫돈과 같은 귀한 헌금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

3개월 지났을 즈음 면장의 집 마당 원두막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면장가정의 생활공간과 겹치고, 사방이 확 트인 원두막이라 주위가 산만하여 어린이 교육을 할 공간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예배당의 확 트임과 앉아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성도들이 예배당의 변화에 대한 바람을 내보이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터와 장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캄보디아에 오기 전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기 위해 남겨놓았던, 언제 사용될지 모를 그 돈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후 교회 건축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캄보디아를 사랑한 우리 부부



의 첫 선교담당 사역자이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LEE 사역자님의 귀한 헌물과 여러 작은 손길들, 몇 교회들의 예물을 통하여, 2018년 10월 주님의 몸 되신 S(사랑)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 양육과 자립

우리 부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온 자매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마을 자매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전하며 준비해 간 재료로 부침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임이 어느덧 8~10명이 모이는 수요 모임으로 이어졌고, 수요 기도회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세 명의 성도들이 양육되었고, 이들은 S교회의 주축이 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양을 고려했을 때, 양육은 훈련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기에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 부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아굴라&브리스길라 부부를 비즈니스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이들을 통해 가난한 성도들의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후 분기별로 캄보디아에 방문하시는 장로님의 소개로 한국에 건조망고 판로가 열렸고, S교회 주위에 맛있는 망고가 재배되고 있음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S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망고 건조 공장은 아굴라&브리스길라 선교사 부부와 성도들의 열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부활절 세례 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면장의 첫째 딸 '영'은 교회와 망고 공장에서 리더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 속에 지난 해 결별하려고 했던 촌&판니 부부도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주셔서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며, 양육도 열심히 받고 은혜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각의 삶의 예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믿음이 십일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잘 자라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S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축복

지난 4월 19일 성 금요일 세족식을 위해서 리더들에게도 사흘 동안 한 끼씩 릴레이 금식하며,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도전했습니다. 세족식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재차 가르치며, 누가 발을 씻기고 씻김 받을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드린 후 추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자매는 그의 어머니와 짝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참석한 18명 모두에게 찾아오셨고,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족식과 함께 처음 드린 부활주일 예배는 S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충만케 했습니다.

때로는 세례자라고  
하기에는 바람에 흩어진  
겨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물이 다 빠져 버린 것 같지만, 하루가 다르게 콩나물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듯 S교회 성도 또한 1차 13명, 2차 7명, 3차 9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쓰라이 넷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심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이라, 결코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떳떳하게 전하자'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세례 받으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메콩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 은혜를 간증 하였습니다. 때로는 세례자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신앙이 더디고 바람에 흩어진 겨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S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 가정과 마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S교회 미래, 차세대들을 위한 기도

지난 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던 중 청소년들이 축구를 좋아함을 알고 2018년 12월 쓰럴란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 30분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두 시간씩 경기를 합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실전경험을 위해 프놈펜 대회에 출전하여, 40팀이 치열하게 경기하였습니다. 우리 축구단은 초반에 떨어졌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쓰럴란 축구단 청소년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짧은 기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심히 출석하며 전도하는 어린 차세대들을 위해 가난한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주며 영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몰려와 두 개 반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기초 영어를 잘 지도해 줄 선생님 또 한 보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S교회 차세대들이 필요와 때에 맞는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요즘 더위로 인한 피부병이 다시 발병하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 속에 자주 전기도 끊기고, 물도 한밤중에만 나와 불편함이 있어 좀 힘들다고 느낀 어느 날, 주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다윗 왕이 그토록 사모한 삶을 살고 있다. 다윗 왕은 지금의 너희를 부러워하고 있지.” 다윗 왕이 그토록 사모했던 한 가지 소원, 주의 성전에서 사는 삶!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이 많은 우리 부부가 시골 마을에, 그것도 교회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피부병이 발병했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마음에는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S교회 청소년 축구단





# 상반기 인터코디 컨설팅 in 대만

김우, 이아브라함, 충성, 윤아굴라 선교사  
RC그룹



김우

동아시아 RC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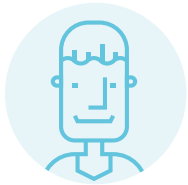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본 것만큼, 아는 것만큼 지경의 한계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끝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 TIM도 시대적, 사회적, 선교적 변화에 맞는 선교를 만들어 가고자 내부적으로 TEAM사역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선진 선교단체를 방문하여 배우고 있다. 이 일에 지역 코디네이터들을 동참시켜 현장 중심의 선교로 변화하기 위하여 체질을 바꾸는 일들을 3년째 하고 있다. 이번에 대만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 교단선교부동아시아지부를 방문하여 선교사가 상호책임을 질 수 있는 실제적 모델을 보면서 150년 이상 된 선교 단체의 노하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TIM의 모든 선교사들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매월 글로 적어서 보고하는 “Monthly Journal” 제도는 선교사들이 책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계획하며, 영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TIM이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손충성

터키, 소아시아, 페르시아창 RC

대만 인터코디 컨선테이션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방향과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방문하면서, 여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적용과 본부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 만들어진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러나 매일 한 밤중까지 이어지는 우리 팀의 목소리와 나눔 속에서 우리도 우리만의 시스템과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 시작인 것을 안다. 우리가 사역지에서 매일 시작점을 찍는 것처럼.



### 이아브라함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RC

이번 대만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IMB와의 컨선테이션을 통해 느낀 점은 IMB는 선교사케어, 선교현장 리더 권한, 선교사 평가 및 계발에 비중을 두고 선교적 교회개혁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는 목표인데 우리 TIM의 목표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타민족 사람들을 제자삼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훈련되고 다듬어진 선교사의 자질과 영성, 타문화권에서의 유연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회개혁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열망이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우리 TIM이 가야 할 방향은 새로운 시스템, 방법적인 측면을 도입하기 보다는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개발 즉 영성과 자질, 전문성을 키워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 윤아콜라

서남아시아 RC

TIM이 선교단체로서 많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물론 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체계적인 멘토링과 리더십 계발이라는 면에서는 더 발전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번 imb의 동아시아지부가 있는 대만에서의 회의를 통해 imb가 어떻게 리더십을 계발하고, 업무 등 다양한 면에서 코칭과 멘토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었다.

imb는 크게 전세계를 10여 개의 Affinity 그룹(people group)으로 나누고 각각의 Affinity안에는 cluster를 두고 cluster내에 각각의 사역 팀이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선교사는 팀에 소속되어 팀사역을 하고 있었고, Monthly Report를 통해 team, cluster, affinity 간에 소통을 하고 있었다.

모든 구성원은 바로 위의 supervisor를 통해 코칭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코칭과 가이드 안에서 한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조직내의 선교사로서 계속 자라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앙집권적인 구조 같아 보였지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스스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더 많은 분권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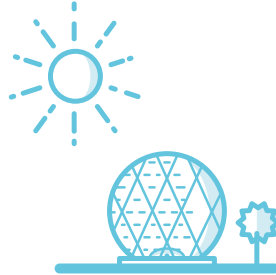
imb선교사들은 먹고 마시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것은 supervisor로서 또는 팀원으로서 소통에 그만큼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cluster까지는 사무실이 있을 수 있으나 팀차원에서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공간에서 사역을 한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모든 일을 팀원들과, supervisor와 공유하며 소통하는 그들의 방법은 매우 배울 만 하였다.

이번 기회에 TIM도 Monthly Journal을 통하여 더욱 많이 소통하고, 케어하고, 전략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하는 조직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하반기 인터코디 컨설팅 in 아부다비

제치윤 선교사  
TIM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TIM본부 리더십, 권역코디네이터(RC), 지부총무, 본부팀장 등 17명이 “성경에서 배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아부다비에 모였다. 그동안 현장중심의 선교사역을 지향하며 ST제도 정착과 RC의 역할을 강화시켜 온 본부와 현장의 리더십들은 TIM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 신임RC소개 및 RC, SC역할논의

지난 3년 넘게 중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 RC로 훌륭하게 사역한 김우선교사는 중국의 상황과 RC역할을 고려해 RC직을 내려놓고, 뒤를 이어 몽골에서 사역해 오신 이요한선교사가 동북아시아 RC를 맡게 되었다. 이번 RC선임은 동북아시아 권역의 모든 정회원이상 선교사들이 투표를 통해 RC후보를 선정하고, 대표의 선임을 통해 결정되었다.

새로운 RC선임에 이어 모든 RC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임기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고, 특히 지역에 소속된 모든 전략팀(ST)과 팀원들을 위해 자신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2017년 TIM25주년을 맞아 WEC과 OMF의 국제본부를 경험하고 논의했던 싱가포르RC회의와 지난해 미국의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국제선교단체 방문, 대만의 imb동아시아 지부 방문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사역을 논의한 지난 RC회의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현장조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SC의 임기와 함께 각 권역의 전체 ST를 점검하고, 현장중심 사역의 방향을 되짚어보기로 하였다. 지역 혹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ST를 이루어 사역해가는 2022년 Stage 1단계까지 가기 위해 2020년 상반기 RC회의에서는 모든 권역의 SC와 ST를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대만 RC회의 이후 본부장과 RC, 그리고 본부리더십들간의 자기점검과 상호케어 목적으로 시행한 “Monthly Journal”(MJ)을 2020년 현장의 모든 선교사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MJ를 통해 작게는 선교사 개인, 그리고 각 가정이 자신들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매월 작성해 SC와 혹은 RC와 공유함으로써 자기점검과 상호케어를 해갈 수 있을 것이다.



### TIM주요이슈와 현안논의

2019년 TIM의 주요이슈들은 선교중국을 위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의 전략적 재배치와 난민선교를 위한 선교팀 구성과 파송이다. 본부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해왔다.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은 국내를 비롯해 특별히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을 계속 이어가고자 대만, 일본, 라오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제주훈련센터로 흩어졌다. 비록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선교사들은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이고 현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무슬림의 강성으로 닫혀있었던 중동아랍지역의 난민선교가 시작되었다. 시리아 내전으로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지로 흩어져 캠프를 이루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향해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그동안 굳게 닫혀있었던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쿠르드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TIM은 L지역 사역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온누리교회 난민사역 개척을 위해 현장으로 장기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 A온누리교회 선교주간

특별히 이번에는 RC회의에 이어 중동/북서아프리카 전략회의까지 30~40여명의 선교사들이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A온누리교회는 회의가 있는 한 주간을 선교주간으로 선포하고, 전 성도가 동참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회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공항 출입국시 출/도착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픽업을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동참해주셨다. 또한 식사부터 간식까지 메뉴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포크와 그릇까지도 일일이 다 신경 써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작은 하나에도 감동받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선교주간을 맞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 위해 전 성도들이 3주 동안 "이 시간 너의 맘 속에"라는 축복송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특성상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A온누리교회의 예배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불러준 축복송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A온누리교회는 K목사를 중심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아웃리치를 비롯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교회이다. 장기적으로 TIM중동지부를 개설하고, 교회 내 선교자원 동원을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들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이번 RC회의를 통해 본부는 현장중심사역에 있어 RC의 역할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매 시간마다 각 RC들이 성경에서 찾은 여러 인물들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도전 받는 시간이 있었다. ST제도가 자리 잡혀가고 있고, RC들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헌신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과 함께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시간과 더러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와 선교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년 RC회의에는 TIM의 핵심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CPM사역을 재점검하고, 정착된 ST제도 가운데 각 ST와 SC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지역별 전략회의 1

## 인니/인도차이나 전략회의

이아브라함 선교사  
RC

2년에 1차례 열리는 인니, 인도차이나전략회의를 통해 사역을 평가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동남아 이슬람 & 불교권 선교'를 위해 TIM의 5개국 9개지역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I국** 청소년 사역과 신학교사역, 무림슬림 사역, 도시선교로 구분된다.

청소년 사역 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R 지역 청소년 현황 파악하여 사역의 전략을 짜고 실행해 나갔다. 조사를 기초로 2곳을 선정하여 사역을 펼쳐왔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전파를 위한 창의적 접촉과 신중하고 과감하면서도 논리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무슬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하게 시도했음에도 현지인 재생산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신학교사역은 신학교선교사 양성신학교로 바꾸고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졸업생들을 미복음지역으로 파송하고, 동인도네시아 복음화에 선봉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무슬림사역의 경우, 무슬림 사역전문가를 키워내는 것 외에도 타문화권 사역에 대한 창의적 선교 및 하나님의 선교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무슬림을 접할 때 그들이 어떤 부류의 무슬림인지 파악하고(I국은 크게 NU와 무하

마디아, 민속 무슬림)접근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각 종교가 소유한 세계관이 있지만 초문화(문화를 초월하는 공통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선교 방법은 제 각각의 이론,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 다르므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단지 파편적인 진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21세기 세계환경의 변화와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 이주민 시대에 맞게 도시선교가 진행 중에 있다. 도시선교는 이미20년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최근에 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TIM의 전방개척선교라는 기본적인 선교 외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즉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TIM의 도시선교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M국**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종족사역을 하고 있는 M국 I지역의 선교사들은 먼저 그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양어장 사역과 태양열을 설치하여 그들의 필요를 돕고 있다. 현재 현지 사

역자를 통해 Y교회가 세워졌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과 그들의 필요를 좀더 깊이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V국** V국은 두 지역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사역, 차세대사역, 무온전교회, 문화사역, 교육사역, 경배와 찬양사역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군들 배가를 통한 교회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다양한 사역으로 분주할 경우 우리의 핵심사역인 제자양성에 집중할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융합모델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L국과 K국** 이 외 L국은 학원사역을 통한 차세대 교육과 장애인 사역을 통한 전도 양육을 진행하고 있다.

K국은 선교사명으로 무장한 교회, 자립하는 교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계층을 품는 교회로서 현시점에서 이양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좀더 토착화된 선교지향적 교회로 리더십을 키우고 재생산 하는 교회로 더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양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된다.

### 총평과 함께 당부의 말

#### 1. 선교사의 부단한 자기계발 요청

TIM선교사들은 영성, 지성,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

#### 2. 교회개혁을 위해서는 2지역 모든 선교사님들은 제자양육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자양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 3.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제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중요한데, 이때 문제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 4. 선교사역을 넘어 그 지역의 최고지역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5. ST간의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슬림&불교권 선교사들이 사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지역별 전략회의 2

## 터키 연합집회 & 소아시아, 페르시아(중앙아시아) 창

손충성 선교사  
RC

### 1. 연합집회

B교회, H교회, Y교회 중심의 현지인들과 미국 IN2교회  
의 단기팀, TIM 스태프들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1박2일  
동안 연합집회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도육한 본부장님이  
강사로 섬겨 주셨고, 세 교회의 TIM선교사들이 통역을 하  
였다(미주 IN2교회 단기팀이 차세대들을 별도로 섬겨주었다).

연합집회 마지막 날은 침례식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30  
여명의 현지인들이 침례를 받았다. 침례식을 위해 물에 처  
음 들어간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침례를 받기 위해 연  
합집회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신본 노출의 부

담으로 침례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현지인들도 있었지만,  
연합집회는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복음으로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연합집회  
를 준비하는 팀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민족과 교회들이 동  
참하는 것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20년 이후부터는 이  
미 터키 안에 모임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페르시아, 중동  
아랍,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모  
래폭풍축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무슬림들은 끝이 보이지



2019년 터키 연합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다



않는 모래 사막 속에 오랫동안 묻혀져 버리고 잊혀진 민족이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덮여있던 모래가 걷히고, 그 속에서 보석이 찾아지는 놀라운 부흥을 기대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덮여있던 모래가 걷히고,  
그 속에서 보석이 찾아지는  
놀라운 부흥을 기대한다.

## 2. 소아시아, 페르시아(중앙아시아) 창 전략회의

**논제** 본부정책방향, MJ(Monthly Journal)실행 논의  
터키, 이란,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19명)와 본부 참여로 총 23명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연합집회를 마치고 바로 진행하였다.

이 시간 도육환 본부장님은 TIM의 현장중심, 난민(이주민)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블라디미르 송 총무님의 본부정책공유와 선교사님들의 질문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블라디미르 송 총무님은 TIM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들을 설명하면서 해당구역, ST별 비전, 미션, 전략들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하였다. 그리고 M.J(Monthly Journal) 실행에 대한 그동안 본부장님과 RC들의 경험과 효과를 나눴을 때 모두가 M.J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점진적 실행에 모두가 동의 하였다.

특별히 이번 회의부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소아시아, 페르시아창 권역에 편입되면서 함께 참석하였는데,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협력을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였다.

연합집회에 참가자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 3. 페르시아(중앙아시아) 창 전략회의

**I국** 이스탄불 시내에 위치한 B교회와 회의실에서 각 지역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현 권역이 터키와 러시아의 현지인 연합집회를 통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사역의 돌파를 위해 터키 안에 거주하는 I인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터키 선교사들의 협력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손충성, 이영광 선교사를 통해 P형제를 소개받았고, P형제는 이번 집회도 함께 했다).

**A국** 새로 시작된 네팔 이주민 사역과 타 단체와 협력하여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공유하며, 러시아나 터키의 현지교회가 단기팀으로 A국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T국** 진행하고 있는 ECC지부의 문화사역을 러시아어권의 현지교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R국** 터키 연합집회를 통해 많은 도전이 되었고 특히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R국 연합집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U국** 처음 각 지역의 사역들을 듣게 되었고 특별히 여성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좋은 협력들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 회의 결과

1.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으로 터키, 러시아 연합집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의 지역에 현지인 연합모임을 만든다.
2. 이번 전략회의 후 터키에서 6월말에 모이는 연합예배에 현지인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힘쓴다.
3. 사역적 도움을 위해 RC가 3개월에 한번씩은 지역방문을 한다.
4. 사역자와 지역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의 타지역 방문을 실시한다.
5. 7월말부터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창의 CW은 SC에게, SC는 RC에게 M.J를 제출하기로 한다. 기도편지와 기도제목을 공유한다(보안지역 제외)



## 터키 연합집회

# 터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초석

이영광 선교사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터키에서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터키에서는 매년 다수의 교회들이 터키전역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연합집회가 이루어 집니다. 처음 시작한 때에는 전체인원이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집회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커다란 집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광장교회는 교회 여건상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연합집회에서 세례식을 하기에, 일년농사의 열매인 세례자를 얼마나 얻을까 하는 기대감이 항상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주실까? 어떤 영혼들을 보내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도

를 하며, 연합집회가 마치는 다음 날부터 전도와 양육사역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주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연합집회를 기다립니다.

2018년 연합집회에서 눈물로 간증하고 세례 받으며 감격하던 청년 우우울(대학3년)이 이젠 찬양인도와 일대일 양육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우우울의 엄마도 예전과 다르게 밝고 바르게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영어회화 동아리 회장을 하며 교수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밝히는 형제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터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동아리 부회장인 아흐멧(대학1년) 형제를 전도 해서 까탈스럽고 내성적인 그의 성격을 참고 받아주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도록 섬기는 모습은 주님의 긍휼함을 닮아 가는 듯 합니다.

그렇게 예수뵈기를 소원하며 사는 우리는 올해도 집회가 있기 3개월 전부터 연합집회를 위한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터키의 여러 도시와 이란과 근방국가의 관심자들과 세례 받을 자들이 모이는 이 연합집회는 우리 사역자들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매년 경험을 합니다.

이번 연합집회 세례식 때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내의 신앙 때문에 삶이 파괴 되었다며, 원망 많았던 이란어인 할레의 남편과 큰형부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팀은 할레가정이 이번 연합집회를 계기로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해 달라고 끈질기게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그들이 휴가를 내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결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K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알리라는 터키인 형제는 터키의 여러 도시에서 온 수 백 명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지 벌써부터 내년 연합집회에는 K교회의 모든 성도가 참석하자는 기도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터키형제들에게는 연합집회가 아주 귀한 경험이 됩니다. 지방에서 숨어서 믿음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연합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일 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며 커 나가는 나무처럼, 매년 연합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의 나이테가 생기며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합집회 규모가 더 커지고 참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터키의 부흥을 주도하는 집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척박한 이슬람의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큰 나무로 자라나며 이 터키 땅에 주님의 푸르른 계절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H교회 침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지역별 전략회의 3

## 중동/북아프리카

서요셉 선교사  
RC

2019년도 중동/북아프리카 전략회의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동안 중동 UAE 아부다비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중동지역의 온누리비전교회목회자, 본부사역자등 모두 26명이 참석하여 팀사역을 주제로한 컨퍼런스에 이어서 각 사역팀별 전략수립과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팀사역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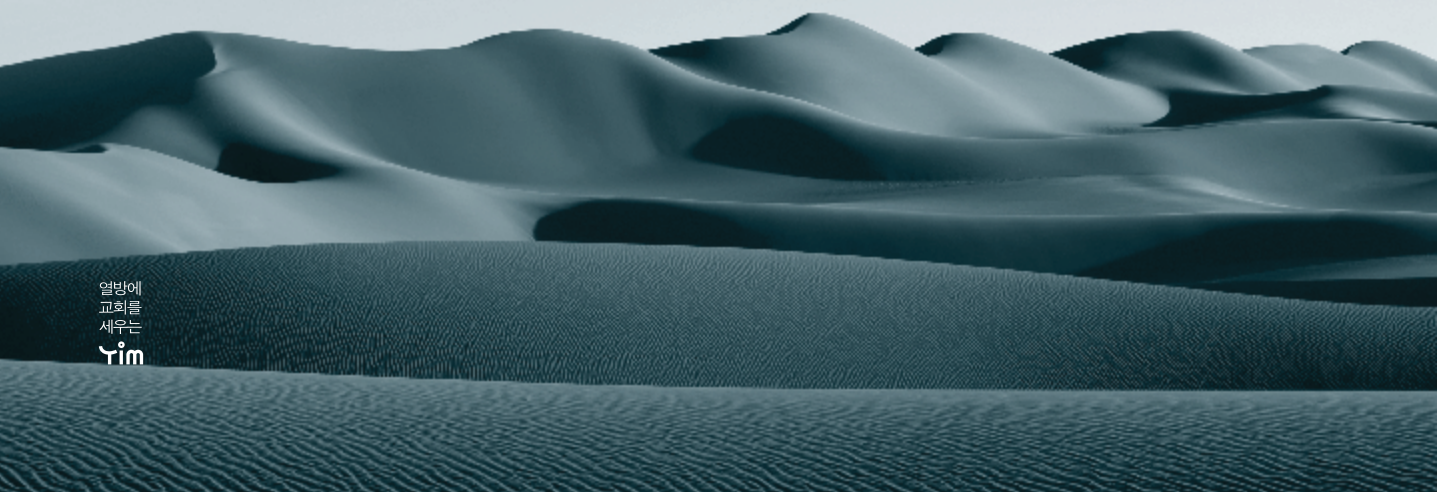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imb 조엘선교사와 랜디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 왜 팀사역을 해야 하는가?
- 팀이란 무엇인가?
- 어떻게 팀을 세워나갈 것인가?
- 팀을 운영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로 실제 흥미로운 액티비티와 소그룹토론을 곁들인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Team이란 특정 미전도 종족이나 지역에서 제자양육과 교회배가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서, 서로를 헌신적으로 잘 돌보고, 의

도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로 구성 된 그룹이다”라는 imb의 정의를 바탕으로 팀을 설명하고 팀은 혼자서 모터 보트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범선이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의 동력이 아닌 바람에 의해 항해하는 것과 같이 팀은 공동의 목적을 향해가되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 움직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사는 팀사역을 해야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신구약의 많은 협력사역을 예로 들었다. 특히 바울이 무려 76개의 사역팀을 꾸렸다고 성경의 예를 보여주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팀을 세우기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정적





한 자기평가와 함께 서로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팀을 키우는 것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팀워크의 5가지 장애로

- 신뢰결핍
- 갈등의 두려움
- 헌신부족
- 책임회피
- 결과경시

등을 꼽았다. 두 강사는 10년이상 현장에서 사역한 경험 가운데서 나온 실제 사역가운데서 일어났던 팀사역의 장점과 어려움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솔직하게 나누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UAE에서 사역하는 imb선교사 부부는 'Team과 선교사의 책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팀에 대한 선교사의 책무를 높이기위해

- 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할 것
- 보고체계를 명확히 할 것
- 모든 것을 문서화할 것
- 특정 마감일을 제공할 것
- 기대치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것

등 매우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 팀사역 전략회의 : 네트워크, 연합과 협력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J국, L국, M국, T국 등에서 새롭게 팀을 구성, 전략적 팀사역 계획서를 이용하여 각자의 사역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모두가 멘토가 되어 질문하고 조언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략회의는 특별히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전략회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 시작되는 K 난민 사역팀을 위해 J국 ST가 문화 사역팀을 구성하여 협력하는 방안, I국 ST에서는 신실한 현지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중동한인교회가 연합 아웃리치팀을 구성하여 선교사역을 돕고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사역들을 만들어 가기로 합의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각 ST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뿐 아니라 각 ST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중보하기 위해 공유방을 만들기로 한 점은 팀사역과 협력사역을 향한 한걸음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 imb강사진이 자비량으로 참석하여 TIM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나누어준 것은 앞으로 imb와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선교지 현장에서도 개별선교사가 imb와 TIM과의 협력을 많이 도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전략회의는 특별히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전략회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동,북아프리카와 ST별 사역을 위해 중보 중이다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선교지향적인  
해외한인교회가 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였다.

### 선교전략요충지로서의 A온누리교회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선교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A온누리교회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다. A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참석한 모든 선교사를 모임 전 공항에서 픽업하고 모임 후 공항까지 배웅하는 것에서부터 전략회의 기간 동안 식사와 간식을 통해 선교사들을 극진히 섬겨주었다. 또한 각 순모임에 초청하여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선교지향적인 해외한인교회가 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 사례였다.



# 온누리교회 융합선교 일본 융합선교현황 및 전략

신민호 장로  
온누리교회 선교본부 융합선교팀

2015년 문상철 원장의 일본 선교의 통합적 접근법을 리뷰 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묻히고, 현지 상황 논리에 변형적 상황화라고 했습니다.



## 선행문헌조사(先行文獻調査)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부쉬도(武士道), 기리(義理), 온(恩), 우치(内)와 소토(外)内と外, 와(和)의 개념(和の概念), 아마에 (甘え)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집단주의 의식을 유발하는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1



## 일본 세계관 분석과 선교의 방향

(日本の世界観の分析と宣教の方法)

다신교 개념과 절대적 창조주 개념의 부재, 종교 다원주의, 현세주의적 성향, 원죄의 개념 부재, 은혜의 개념 부재, 집단 압력의 문제, 지식 전수 위주의 경향, 의식적 차원의 이슈, 지도자 의존형 세계관과 교회 운영, 양보다 질 위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의 조화가 필요하고, 선교의 전략적 문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문헌적 종합 분석(文獻分析のまとめ)

일본 주재 선교사들과 일본인 사역자들은

**첫째, 일본 문화에 민감성을 기르고 세계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일본 선교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 세계관들의 변형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일본 선교는 성육신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희생함으로써 성경적 세계관을 삶으로 구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분석(データ分析) : 거대통합 이론의 생성(グランド-統合理論の生成)

### 내관적 데이터 분석(内観的なデータ分析) : 상황화 관점(状況化観点)

#### '문화를 존중하자'는 관점

와에 기초한 아름다운 팀워크, 간접적이고 섬세한 의사소통 방식, '부흥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인식되지 않았다'는 인식, 관계 형성 후 전도, 공동체성 강조, 종교 다원주의, 목회자의 텐트 메이킹 이슈, 한길 교회 간의 협력

### 외관적 데이터 분석 : 세계관 변형 관점

#### '세계관을 변형하자'는 관점

한류 활용한 문화 사역, 협력사역, 범신론적이고 다원주의적 종교관의 변화, 교회 개척 주장, 율법적이고 어두운 일본교회 문화 지적, 창조에 대한 성경적 신앙의 부족 지적, 그리스도의 유일성 선포, 회개 운동과 말씀 중심의 신앙 전수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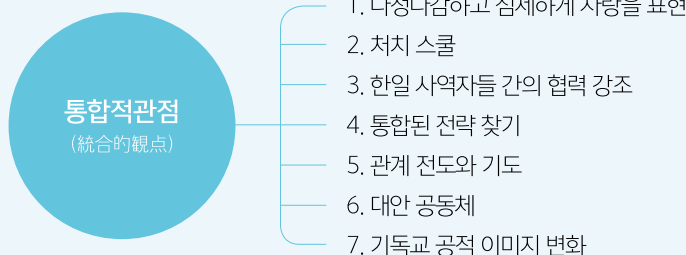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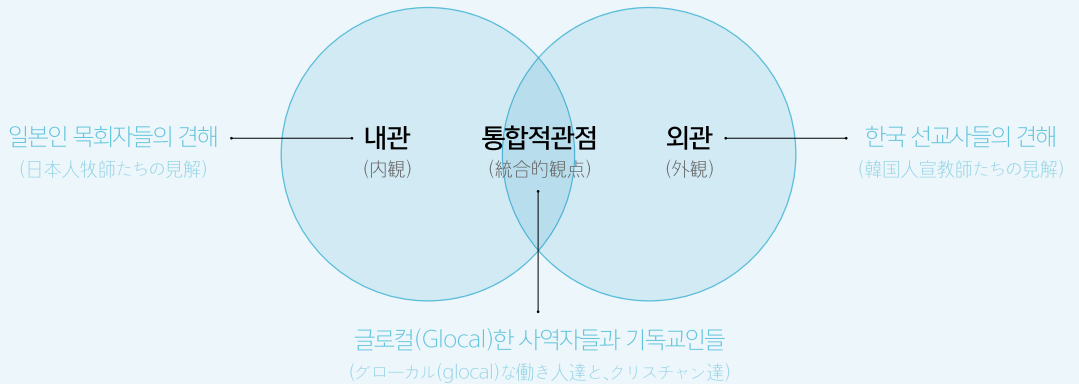
### 통합적 데이터 분석(統合的なデータ分析) :

#### 변형적 상황화 관점(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状況化の観点)

#### 내관적 상황화의 논리와 외관적 상황화의 통합

일본 목회자의 견해, 한국 선교사들의 견해 : 통합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역자들의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균림하는 자세를 하거나 일본 교단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공적 이미지가 변해야 한다. 대안 공동체를 만들고, 관계 전도와 기도, 처치 스킴을 통해 통합적 관점을 개선해야 한다.





### 1.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에 의의와 평가

일본에 3천 여 명 선교사 중 한국인 선교사가 1,300-1,400명이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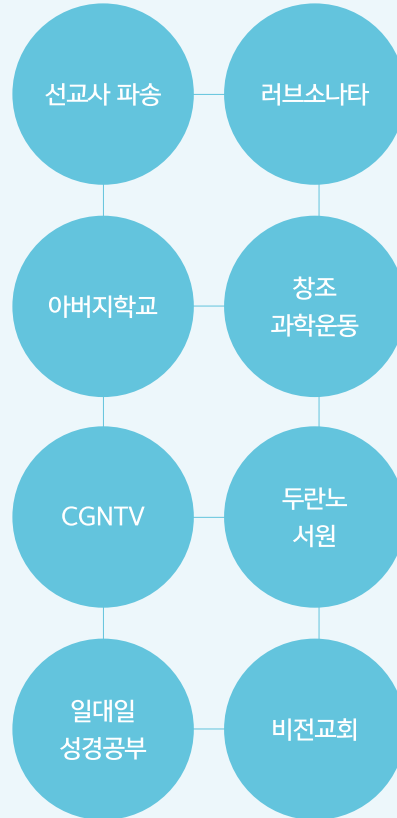
**장점** 순수한 구령의 열정, 사역자들의 기도의 영성, 기독교 세계관 등 교육에 강조, 팀 사역을 통해 상호보완성 확보, 일본 상황에 맞는 전도와 제자 훈련

### 3.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를 위한 제안

- 일본어를 충분히 익힐 것
- 일본 목회자들과의 협력
- 건전한 책무 구조 형성
- 어린이 사역의 전문화
- 다양한 전도법 활용
- 전략회의 개최와 지속적인 헌신

### 2. 온누리교회의 일본 선교의 의의와 평가:

26개의 기관이 섬기고 있음.



### 4. 온누리교회의 일본 선교를 위한 제안

- 사역 방향을 정립
- 일본 선교의 장기계획
- 사역적 통합을 위한 노력 강화
- 한국교회와의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CGNTV와 러브소나타 실제 요청에 따라 차세대를 위한 집회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 비전교회와 두란노서원 영향력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아버지학교와 일본 가정 문제 **오사카 온누리교회 > 요코하마 > 동경** 등, 해외에서 아버지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멤버케어 강화
- 신학교육 사역 **일본인 목회자들의 신학교육이 부족함. 자유신학 주의, 부활신앙과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부족한 일본인 목회자가 다수임.**



## 융합선교의 필요성

### 1. 온누리교회 선교방향 전환

개별적 선교사역을 넘어 팀 단위 선교사역으로 가자 **융합선교, 선교사 파송**

### 2. 일본선교에 대한 변화의 VOC - 선교현장

- 많은 온누리 프로그램, 일본교회의 니즈인가?
- 파송된 선교사가 일본 현지에 최적인가?

### 3. 일본선교에 대한 변화의 VOC(Voice of Customer) - 선교본부

“교회의 선교전략 변화, 양에서 질을 추구해야 한다.”

- 선교사 파송의 효율성 제고
- 일본선교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일본선교, 융합선교 시스템으로

### 일본사역간 융합도 및 시너지 관계

각 기관의 개별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 일본융합선교의 비전 :

**한 몸된 유기체로서 하나로 융합하고, 관리, 운영되는 일본선교 사역체로 만들어가자.**

## 일본융합선교의 8개 과제

1. 일본 교회 및 목회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2. 일본인 목회자 및 목회자 가정 지원사역
3. 영역별 전문 사역자 파견, 콘텐츠 제공
4. 영적 리더 육성 지원 사역
5. 일본 선교사의 발굴, 육성, 파견 및 체계적 후원
6. 일본 재해지역의 체계적 지원 사역
7. 크리스천 소셜 리더십 빌딩 및 복음화
8. 한,일 신학교류 및 신규 교육 콘텐츠 개발 협의







# 선교중국 하나님의 손길 : 위기를 선교중국의 동력으로

허드슨 선교사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 지난 1~2년을 뒤돌아보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게 된다.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진핑 중국 정부는 집권 2기를 앞두고 1당 1인 지배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국가 장악력 제고의 일환으로 종교, 특히 기독교를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외국 선교사는 추방하고, 자국 교회는 “기독교의 중국화”를 내세워 하나님보다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변질된 기독교”로의 개조를 시진핑의 중국은 꿈꿔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필자가 사역하던 중국의 모처에서도 한국 선교사들이 연일 추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3월의 어느 날, 평소 낯익은 정복 차림의 파출소 경관 한 명이 사복 차림의 낯선 상관 한 명(나중에 알고 보니 안전국 간부)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고, 심문 후 조서에 지장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간 강의를 하며 비자를 해결했던 모 대학에서 더 이상 비자 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검색을 찬 필자 부부는 선교 본부에 안식년을 신청한 후, 서둘러 사역과 살림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중국 선교사 가정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논의하였다





귀국 비행기 속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나가면 다음에 들어올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과 “들어올 수 있다 한들 중국에서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나?”하는 회의감이 교차하면서, “그래도 한 두 번은 더 들어와서 사역도 살림집도 완전하게 정리하고 형제, 자매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건강 검진, 심리 검사, H2H 등 본부에서 마련해 놓은 본국사역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회복과 쉼의 여름을 보낸 후 9월에 아내가 먼저 중국 비자를 신청할 일이 생겼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막연하게 도사리고 있던 위기감이 현실화 되는 순간이었다.

### 9월에 아내가 먼저 중국 비자를 신청할 일이 생겼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

2004년부터 15년간 기도와 눈물과 땀을 흘렸던 곳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언제까지? 남아 있는 T족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누가 양육하고 돌봐 주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짐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게 되었다.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바꿔서 여권을 재발급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름을 바꾸면 중국 대사관에서 더 의심하고, 옛날 여권까지 다 가져와야 비자발급 심사를 해준다.”라고 담당 직원이 조언을 해 주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초청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뽕족한 수가 없으니, 가장 단순한 여행 비자를 신청해 하나님의 뜻을 묻자 라는 생각에 10월에 여행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제2의 사역지를 찾아나서야 했다. 필자 부부만이 아니었다. TIM 동료 선교사들도 한 가정, 한 가정 추방되거나 비자발급 거부로 더 이상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중국 선교의 위기상황이었다. T.F(Task Force) 팀이라도 구성해 이 위기상황에 긴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다. 때마침 온누리교회에서도 중국 선교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2018년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제4차 온누리선교컨설팅에서 “온누리교회는 선교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자발적 귀국 선교사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며 현지사역의 경험이 전수되고 확대되도록 배치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TIM에서도 이 결정에 근거해 T.F 팀을 구성, 활동하게 되었다.

자원자들 8명으로 구성된 T.F 팀의 활동 목표는 2가지였다. 첫째는 아직 중국에 남아 있는 TIM 선교사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철수시킬 것인가? 둘째는 이미 나왔거나 향후 계속 나오게 될 TIM 선교사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이었다. 12월 그간의 활동결과를 TIM에 중간 브리핑하는 회의가 있었고, 중국 쿤밍부터 시작해 전략적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는 순간이었고, 후일 뒤 돌아보았을 때 T.F 활동의 보람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중국 교회가 일어나 세계 선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이슬람권에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며,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

한편, 본부 위기관리팀 산하 T.F 활동과는 별도로 선교사들은 12월부터 매 달 2번 정도 자발적으로 모여 공감대를 쌓고, 기도하며 향후 대책을 의논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 덕분에 12월말부터 연이어 귀국하는 TIM 선교사들이 보다 빠르게 전체 상황을 인식하고 적응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19년 1월 들어, 온누리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로의 재배치 과정은 답보적인 상황이 한동안 흘러갔지만, 봄을 지나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선교중국”이라는 큰 목표가 형성되었다. 7,8월 여러 차례의 선교사 모임 및 본부 리더십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마침내 8월 하순에는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K국, L국 외에도 제주와 일본, 대만에 흩어져 “선교중국”이라는 동일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길이 열렸다. 중국 선교사들을 세계로 흩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감되었다.

중국 교회가 일어나 세계 선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이슬람권에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며,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마지막 남은 과업을 중국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필자 부부와 유 선교사 부부는 팀을 이뤄 일본 오사카에 배치되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오사카에는 팀 재팬(TIM JAPAN) 본부가 있고, 오사카온누리교회, CGNTV, 두란노서원 등이 있어서, 융합선교의 적지이다.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중국”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린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흩으신 TIM 중국 선교사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도록 기도드린다.



## 난민사역 리서치

# 난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파도

윤아쿨라 선교사

2019년 3월 화창한 봄날, 온누리교회의 선교부서들은 경기도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서 연합리트랏을 가졌다. 강사로 오신 수원하나교회의 고성준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난민을 통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주셨다. 주님은 계속되는 시아와 수니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고통 당하는 난민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 이에 온누리교회의 선교리더십들은 난민사역 현장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교회의 난민사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J국과 L국으로 리서치를 다녀오게 되었다.

먼저, 난민사역현장에서는 이제까지 생각하기 힘들었던 현저한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위 무슬림사역은 10년에 한 명의 개종자를 얻기 힘든 사역이라고 생각해왔다. 정말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선교사 또는 사역

자들에 의해서만 소수의 개종자를 얻을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시리아/쿠르드 난민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여성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역팀 별로 연간 수 십 명씩 세례를 주고 있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도 놀라운 사역과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깨어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도 매우 효과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둘째, 온누리교회가 입양하고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쿠르드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L국에 있는 시리아난민들 중에 쿠르드난민들이 다수 섞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리아난민들보다 그 안에 섞여있는 쿠르드난민들이 복음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쿠르드난민사역 만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되었다. 쿠르드난민들은 이슬람국가인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퍼져있지만, 이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이러한 난민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을 더욱 힘써 열고 들어가야 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부흥의 파도를 반드시 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시진핑시대의 “중국 선교사 추방”이라는 사건과도 무관치 않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가정교회는 1920년대에 실크로드를 따라 “백투예루살렘”을 하며,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국가를 복음화하려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10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번 L국 방문을 통해 중국선교사들과 사역했던 한국인선교사도 만나게 되었다. 중국가정교회는 실제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들은 시진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新 실크로드를 따라 중동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시리아 등, 중동이 재건될 때에 중국의 자본과 인력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선교사들은 이 재건인력들과 함께 중동으로 자연스럽게 보내어진다. 한국선교사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선교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리서치를 마치면서 온누리교회의 선교리더십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온누리중심이 아닌 하나님중심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선교기관이 이것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TIM은 아랍권선교를 난민사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돌파를 경험하길 원하는 아랍권 선교사님들에게는 L국에서 1~2년간, 사역팀과 열린 지역에서 전도와 돌파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계속적인 분쟁, 아랍권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난민들의 출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감독이 되어 연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무대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고 주님께 간구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위. 난민어린이들이 체육활동 중이다  
아래. 난민촌 내 늘어난 상점이 빼빼롭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고  
주님께 간구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 난민융합사역 난민사역 이야기

김솔람미 선교사



저는 선교지로 초청하시고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2013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4년 1월부터 요르단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5년 3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동역자들과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많은 것으로 채우며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었고, 세심한 주님의 배려와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본국사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쉬과 재충전의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요르단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함께하자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다른 영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많은 것으로 채우며 경험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 갈 예정입니다.

## 요르단 난민사역

요르단에는 난민이 많습니다. 중동의 가운데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사회의 원조나 투자유치를 위해 난민 수용을 정책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중동과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이 국경 근처는 물론 수도 암만에 이르기까지 많이 살고 있습니다(요르단 국민의 60%가 넘는 팔레스타인계는 이전부터 중동전쟁을 통해 유입되었던 팔레스타인난민들이 요르단에 정착,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았던 집의 주인댁도 50여 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와 정착한 분들이고, 맞은 편 주택에는 시리아 난민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는 수단,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난민 가족들이 살고 있고, 뒷동네에는 50년 전에 난민으로 들어온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여전히 난민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에 있는 요르단 내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난민사역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책무가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계획했던 사역보다 많은 필요와 요청으로 수단과 시리아 등에서 피난 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난민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난 난민들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방문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들의 꼭 닫힌 마음을 여는 틈새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품으로 돕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로 고단한 그들의 삶을 위로하며 말씀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취업과 이민 시 필요한 영어회화와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랍어문자교육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한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사역을 병행하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서투름으로 도전하면서도 주님이 하시도록 그저 나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이들보다도 제가 더 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 용납이 아니고는 이곳의

상처받고, 거칠고, 돌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품을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 레바논 난민사역

2010년 튀니지에서 26살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분신자살을 한 것을 시작으로 튀니지 민중이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랍의 봄'이라는 이름의 아랍 민주화운동의 시초로 중동/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의 시위는 2011년 3월에 시리아에서도 일어났으며, 곧 반군에 의한 내전이 번졌습니다. 내전은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의 지원으로 서방과 이슬람종파 간의 대리전 형태가 되었고, 47만 명의 사상자와 620만 명의 국내 실향민 외에도 총 600여 만 명의 국제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은 터키에 370만, 레바논에 100만, 요르단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의 독일, 그리스로 이동하여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난민들이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사역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이슬람 역사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난민의 처지에 마음은 가난해지고, 이슬람 정부나 친족공동체의 소홀한 감시와 난민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하는 교회, 선교사와의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가 많아진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간 TIM에서의 난민사역은 시리아내전이 일어난 다음 해인 2012년 요르단 A지역과 M지역, 그 다음해 레바논 B지역에서 NGO단체인 '더 멋진 세상'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온누리 선교기관 연합 리트랏을 통해 난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추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계기로 4월 온누리 선교기관장들이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하여 하나님이 난민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TIM은 레바논 B지역 시리아 난민 집단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팀을 구상하고 전략팀 구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B지역 난민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의 미전도종족 중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르드족의 분포지역이 접근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레바논에서 쿠르드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시리아 난민들 중에 쿠르드족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쿠르드족은 대부분 무슬림이지만(순니파가 75%), 국가 없이 억압받는 소수종족으로 살아온 역사를 통해 복음에 매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바논에도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와 레바논 난민팀은 난민들 중에서도 쿠르드 난민에게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들이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이라는 형편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TIM의 레바논 난민팀이 사역할 곳은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산맥을 하나 두고 있는 분지 형태의 지역으로 많은 난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와 아직도 초기 난민의 모습으로 천막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은 전통적으로 마론파 기독교(동방정교의 일파)가 많은 곳으로 현재 인구의 32.6%가 기독교인(복음주의 기독교인은 0.71%)입니다. 기독교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점과 레바논정부가 난민협약 미가입 국가이고, 난민 구호를 주로 NGO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B지역에서의 난민사역은 구호 등의 방법을 통해 난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 속에 섞여 있는 쿠르드족에도 접근이 용이하기에 레바논 난민팀은 시리아 난민과 그 가운데 있는 쿠르드족을 타겟으로 하여 난민사역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레바논 난민사역은 크게 세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개척 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둘, 현지인, 현지사역자 및 교회, 국내외 교회와 협력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는 융합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셋,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쿠르드 공동체 및 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기반을 통해 쿠르드족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총 6유닛이 모여 난민융합사역의 전략팀을 구성했고, 이미 3유닛이 선발대로 레바논으로 들어가 초기정착과 사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난민팀과 TIM만이 아닌, 여러 유관 기관들과, 온누리교회 그리고 이 사역에 관심과 소망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갈 사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이라는 형편을 통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내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전략회의  
& 리서치

FA(Frontier Agency)

# FA사역지 변화와 지역에 따른 기대

제치윤 선교사

TIM

지난 2018년 악화된 중국선교상황으로 인해 우리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중국 우루무치와 쿤밍에 베이스를 뒀던 FA도 철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년 선교동원이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FA를 배 출해 온 온누리교회와 TIM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청년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지역 선정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 중 선교 전략적인 차원과 청년선교동원의 측면에서 몽골, 유럽, 일본 등이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다. “Frontier Agency”라는 이름으로 청년선교사들을 파송해 전방개척사역에 집중해 온 것처럼 우리는 기존 인도네시아와 네팔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을 새로운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2019년 12월 현재는 네팔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FA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일본은 복음화율 1% 미만의 미전도국가로 현지교회들이 있지만, 일본의 교회들은 점점 무 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는 현재 7개의 온누리비전교회가 있고, CGNTV와 두

현지 교회의 요청으로 일본어 특순 중인 FA일본팀







현지교회를 방문하여 담임목사님과 교제

故하용조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지금까지  
30여회를 거듭하며 일본선교와  
일본교회에 복음의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45

란노서원이 문화 콘텐츠사역을 해가고 있다. 故하용조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지금까지 30여회를 거듭하며 일본선교와 일본교회에 복음의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단체는 선교불모지인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개척과 일본 현지교회를 지원하며 현지인 리더십을 양육하는 사역을 지속해 왔다. 2010년 온누리비전교회가 힘을 모아 창립한 TIM-Japan(TIM일본지부)은 2019년 7월 2일 오사카에 정식 사무실을 개소하며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누리 일본선교의 흐름 가운데, 일본선교의 돌파와 지속적인 선교동원을 위해 FA는 지난 3월, 9명(FA16기 23명중)의 청년선교사들을 일본오사카로 파송하였다. FA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일본지역이며 첫 기수였기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 FA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마다 숙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현지선교사님의 수고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시는 현지 한인 성도님의 도움을 통해 좋은 숙소를 구하게 되었다. 언어훈련은 한국어가 가능한 일본인 대학생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고, 주 사역으로는 주변지역 복음전도와 버스킹, 그리고 현지인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일본 FA팀은 오사카에 위치한 대학캠퍼스를 방문해 현지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어설픈 언어실력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기적으로 캠퍼스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청목회자와의 라운딩에서 FA와 함께 대학캠퍼스를 방문했을 때는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저글링 동아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캠퍼스의 작은 공원에서 연습하고 있는 일본 현지 친구들이 놀랍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곧 FA들은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들도 배우고 싶으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기를 30분 정도 곧 그 동아리 멤버들과 연락처도 주고 받고 LINE앱도 연결하면서 계속된 만남을 약속할 수 있었고, 동아리의 공연에도 초대받게 되었다. 현지 장기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사역해 나가지만,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다음세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FA선교사들은 비록 언어는 미숙할 지 모르지만, 젊음과 열정이 FA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선교의 도구가 된다.

일본 FA선교사들은 3명씩 3개의 팀을 이뤄 한인예배가 아닌 일본 현지인교회에 흠어져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 중 2개 교회를 방문해 현지 담임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누고, 일본의 현지 상황과 FA선교사들의 활동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은 목사가 부재한 많은 수의 무목교회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을 포함한 다음세대들을 교회에서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잘 훈련된 FA청년 선교사들의 현지교회 사역은 현지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러브소나타와 융합선교로 집중하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현지교회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역을 지속하는 데 있어, FA선교사들이 각 현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일본 선교의 큰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초 TIM 일본지부 개소로 TIM은 일본의 온누리비전교회와 TIM선교사들 그리고 융합선교팀과 일본선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사역에 있어 FA선교 사역은 힘을 보탬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일본선교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FA선교사들이 각 현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일본 선교의 큰 방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의 청년들과 교제





현지 교회와 함께 한 노숙자 사역

2020년 18기 파송을 앞두고 아랍권선교에 방향을 두고 새로운 지역을 준비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난민들이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지로 흩어져 캠프촌을 이루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TIM은 선교적 기회를 얻은 이 땅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장기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쿠르드족에 대해 사역적 돌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전으로 발생한 많은 쿠르드족 난민들이 캠프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랍어와 무슬림사역이라는 장벽으로 막혀있었던 중동 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지난 5년여 FA가 활발하게 사역해온 네팔에 복음전도에 대한 국가적인 제재와 비자발급의 어려운 상황이 겹쳐 중국에 이어 네팔도 FA파송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난민선교의 기회를 살리고, 장기선교사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 아랍어권 사역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랍권에 FA베이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히 아랍어권에는 “한류”라는 문화적 영향력으로 인해, 현지인으로 하여금 “한국 청년”들이 많은 호감을 사고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FA 청년 단기선교사들이 중동 땅에 새로운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낼 것이다.

일본과 아랍어권으로 또 다른 선교방향을 잡은 FA사역은 온누리교회와 TIM의 선교전략을 실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단기 선교사 배출로 이어져 선교지원자가 줄어드는 한국선교와 온누리대학청년부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 TIM 훈련 TRT, TCT에 대하여

제치윤 선교사  
TIM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라면 신입선교사부터 한 팀을 마치고 본국사역을 하는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훈련의 단계들이 있다. TIM의 이니셜 “T”로 시작하는 4가지 훈련으로 TST (TIM Spirit Training), TCT (TIM Church planting Training), TFT (TIM Field Training), TRT (TIM Re-builder Training)가 바로 그것이다. 이 4가지 훈련은 단계적 훈련으로 TST는 TIM의 Spirit을 공유하는 훈련으로 신입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고, TCT는 장기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 전도와 교회개척 훈련을 하는 훈련이다. TFT는 초기 현장 적응을 위한 훈련, TRT는 한 팀 혹은 두 팀을 보낸 선교사들이 본국사역으로 국내에 들어와 본부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그 중 TCT와 TRT 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년 TIM은 장기선교사들이 자신의 현장을 밟기 전 타문화이해와 적응을 위해 FFO (TIM Field Operation) 훈련을 인도, 스리랑카 등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타문화 적응에 필요한 것을 익히고, 현지인을 직접 접촉하는 등 초기현지적응에 필요한 훈련들을 실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파송지역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진행함으로 재정의 부담과 현지 언어에 대한 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타문화이해와 현지적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방개척과 교회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TIM이 “전도와 교회개척”에 더 큰 훈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2014년 TIM은 미남침례교단 imb 선교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훈련을 도입해 신임선교사들에게 전도와 교회개척 부문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이로써 해외가 아닌 국내 최대의 전도실습장인 경기도 안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전도훈련에 매진하는 TCT훈련이 탄생하게 되었다.

12주 동안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하루 8시간씩 전도에만 몰두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모해보이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겪은 모든 신임선교사들은 복음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심지어 훈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 전도를 이어가는 선교사들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재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실제로 매 기수마다 1,000여명 이상의 외국인들과 접촉하고 100여명 이상의 영접과 심지어 세례자와 성경공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낮선 선교현장에 떨어진 선교사들은 문화충격과 언어훈련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론 목적을 잃고 영과 육이 지쳐 생활형 선교사로 안주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TCT의 과정은 문화와 환경, 날씨라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체험하는 선교사들로 성장시켜주고 있다.

한국교회선교단체 연합에서는 “안식년”이라고 부르던 선교사 안식년제도를 막연한 쉼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재평가하고 차기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본국사역”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이 한 팀 혹은 두 팀의 시간을 보내고 본국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자기개발의 시간 뿐 아니라 달라진 교회와 본부의 선교흐름을 이해하고, 본부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TIM은 이 시간을 자신의 사명과 가치를 다시 세우는(Re-build)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TRT훈련이다.

이 TRT훈련은 선교사 개인이 본부를 상대로 현장에서 의 삶과 사역을 디브리핑하고, 차기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 동료선교사들과 함께 함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삶과 사역을 여러 동료들 앞에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나누는 디브리핑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교회개척사역의 방법이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타지역 교회개척의 사례를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도전 받으면서 선교사들간에 선교동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외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에 몰두함으로 가질 수 없었던 독서와 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개인과 사역을 되돌아보며 본국사역 기간을 알차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다시 차기 사역 방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기개발의 시간을 거쳐 차기사역을 힘있게 출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IM이  
 “전도와 교회개척”에  
 더 큰 훈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 본부사역(Tim Rebuilder Training)

# TRT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 려 선교사

TIM

### 본부사역참여

2019년 1월, 본국선교사 본부사역 1차를 4주간 하게 되었다. 2011년에 했던 본부사역과는 확연하게 달랐는데, 단순히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아닌 본국사역 선교사들의 자기계발과 함께 본부와 교회와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때는 사실 다른 기대감 보다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다. 하지만 1, 2주가 지나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다.

### 본부사역섬김

본국사역훈련을 받은 후 2차, 3차 본부사역을 섬기면서 6개월간 본부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은 기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했다고 느낀다.

먼저는 섬기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돌파가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간사님들을 귀찮게 하며 질문하고 많은 도움도 받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다. 또 하나의 큰 소득은 각 나라에서 사역하다 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브리핑, 교회개척, 복리부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보게 되면서 진한 존경심과 전우애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밖에서만 보던 본부에서, 한 명의 본부선교사로 사역을 해보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보게 되었다. 본부는 항상 바쁘고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

먼저는 섬기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된다.

또 하나의 큰 소득은  
각 나라에서 사역하다 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TRT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본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하기 때문이다.

런 반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고 영광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다. '간사님들은 본부에서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기존의 사고도 깨졌다. 아침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이들의 삶을 보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며 도전을 받은 적이 많았다. 이들의 수고하는 모습과 영성을 볼 때 '이들이 바로 본부의 선교사다'라고 말하고 싶다.

TRT 1차를 받고, 좀 아쉬웠던 부분을 2차에 보완했고 3차에 또 보완을 하였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점이 있고 미숙한 진행과 놓친 부분도 있다.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느슨한 일정 속에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교회와 본부의 정책, 선교사님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하나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정표를 짜다 보니 빡빡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TRT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본부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보완하기 때문이다. TRT는 단순히 강의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간의 삶과 사역,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낸다면 더욱 더 발전하는 TRT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국사역 1차 선교사들이 마지막을 함께 기념하다





# TRT(TIM Rebuilder Training): 본국사역선교사 본부사역을 마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이성희 선교사

본부사역을 하기 전에 현장에서 12년 이상 사역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4주간의 'HOME TO KINGDOM(이하 H2K, 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 교제하는 것은 사역과 삶을 공감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뤄 서로 어우러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몇몇 선교사님들과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그분들 역시 저와 같은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현지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서로 노력하고 배려, 연합함으로 훈련을 잘 마치고 아쉬움의 작별을 했습니다.

각자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현지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서로 노력하고 배려,  
연합함으로 훈련을 잘 마치고  
아쉬움의 작별을 했습니다.

본국선교사들이 본국사역을 끝내며 기쁨의 특수를 하고 있다





훈련을 마친 홀가분함은 잠시, 바로 이어진 TIM Rebuilder Training(이하 TRT, 본국사역선교사 본부사역)을 생각하니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과의 적응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역할임에도 익숙하지 않은 만남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꿔 즐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TRT는 H2K훈련과는 다르게 참석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부분들을 각자 준비해야 하는 피곤함(?)은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낸 사이인 선교사님들, 처음 만난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과 사역지역도 전혀 다른 선교사님들 등 저와는 다른 다양한 선교사님들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연차의 다양함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을 진단해보며,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사역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멋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H2K훈련부터 TRT까지 이어오면서 '순종'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행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종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계속되어 본국사역을 마치고 현지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부 선교사님들, 섬겨주셨던 스텝들과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연차의 다양함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을 진단해보며,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TIM Church-Planting Training(TCT) : 재생산하는 교회개척훈련

## 장기 신입 선교사의 현장 적응 훈련

### 팀사역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구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팀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TCT팀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한 믿음을 경험하였고, 팀사역으로 인해 축적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있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관계의 어려움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날마다 부르짖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를 통해서 팀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것이 어느 곳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게 하였다.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간절한 기도의 열매이다.

매일 TCT회의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주간 디브리핑을 함께 하였다. TCT회의는







전도의 전략과 노하우, 전날 전도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나눔으로써 다음 번 전도에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라별 성향을 나누면서 접근 방법과 복음을 제시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였고 중간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만나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간 디브리핑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누고 다음 주 일정을 확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 팀이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었고 팀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로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서로의 대화법을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름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자신들을 내세웠던 팀이었는데 점차 서로를 존중하며 그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 아이 돌봄

사역적인 부분과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영역을 함께 하는 것으로 다짐을 하고 시작한 TCT훈련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훈련에 함께 한 MK는 2명(최예솜7세, 최은우5세)이었다. 최용성, 공경록 가정의 자녀로 기존에 양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대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새롭게 시설을 알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은 없었다. 팀 인원이 적고 아이들도 2명인지라 모든 일정을 아이들도 함께 소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걸어 다니며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안산과 다르게 공원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많아 늘 아이들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 초반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낮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하원 한 후에 우리와 함께 전도 장소로 이동하는 코스였다. 하루에 정한 사역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전과 오후



에 열심히 거리에 나갔지만 이주민의 특성상 퇴근 후 저녁시간에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전도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전도의 시간 동안에 머물거나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보통의 경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놀이터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에서는 먼저 전도를 나갈 팀(남성전도-최용성, 여성전도팀-박미선, 공경록)과 아이 돌봄 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남성전도 팀이 먼저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고 여성전도 팀은 아이들을 접촉점 삼아 결혼이주 여성들을 전도했다.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오게 되면 한 명이 여성과 아이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먼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나머지 한 명은 MK를 돌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팀원을 중보했다. 적은 인원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기에 쉽지 않았기에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했고, 그것을 수용하고 협력하는데 많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했다. 조금의 단어도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순간에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 가는데 지혜가 필요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갈등이 생기지만 그것을 지혜로운 대면과 대화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결국에는 그것 또한 팀 빌딩으로 이어져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해하는 시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 내가 지도해야 한다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계획하면서 기도 후에는 큐티를 묵상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내가 지도해야 한다면>이라는 책을 추천 받게 되었고 이 책을 큐티처럼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수정하였다. 내용이 간략하여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아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나누었는데 팀 안에서 꼭 필요한 자격과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는데 있어서 그 문제를 상대에 두지 않고 상대를 통해 내가 변화 되어야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가득하다. 아무리 일정이 빠듯하여도 이 시간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스스로를 그 내용에 적용시켜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 서로의 성향과 스타일을 알게 되었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되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그것을 가지고 느낀 점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보일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동일한 환경 안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책의 저자인 선배 선교사의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책의 내용을 잊지 않고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나왔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책은 필요치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자아가 팀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책과 같이 함께 읽고 나누며 팀빌딩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느낀다. 처음에는 과제로 여겨졌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는 TCT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는 보배와도 같은 책이며 시간이 있음을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TCT훈련 동안에 팀 빌딩에 도움이 된 <내가 지도해야 한다면>은 훈련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갔을 때 팀원들과 꾸준히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보다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며 함께 팀 사역에 열중하고 있는 필드의 선교사들에게 더 많은 통찰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겸손, 그리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사역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빼먹을 수 없는 핵심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팀 안의 관계와 사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TIMer로서의 정체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말씀 속 언약의 성취를 꿈꾸며 오늘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번 TCT훈련은 재생산하는 교회개혁의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현장 적응을 위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10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 훈련과 제자훈련, 나아가 소그룹과 교회개혁이라는 모든 단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우리팀은 전도와 제자훈련까지 경험하고, 연합한 지역교회에 이들을 연결한 후 이주민들을 위한 영어예배가 개설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건물의 교회가 아닌 예배자 중심의 교회로 개척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교회가 많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배 개혁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현장에 가서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복



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수를 늘여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기에 충분한 훈련이었다.

또한 TIMer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임무인 교회 개척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팀사역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현장의 구도가 개인 사역에서 팀사역으로 변화되었고, 나아가 융합사역으로 통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TCT훈련의 하며 팀사역을 위한 팀빌딩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이 앞으로 TIMer로서 선교현장에서 팀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TIM은 핵심가치로 믿음, 거룩, 헌신, 순종을 이야기 한다. 이제는 이 핵심가치들을 개인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팀사역 안에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에서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TCT훈련과 같이 국내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지난 10주간의 시간 동안 2019년 TCT 팀으로서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이라고 믿고 순종하였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거룩하고자 노력했고, 함께 사역을 하며 함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팀을 위해서 서로를 내려놓고 헌신하였다.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순간 우리는 TCT훈련을 경험하기 전보다 팀빌딩을 통해서 팀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성숙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팀 안에서의 다름을 발견할 때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누군가의 배려와 혜택들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TCT훈련이 고난의 시간이며 시간낭비로 여겨지고 현장에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뿐 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첫째 TCT훈련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둘째 팀사역을 통한 다름으로 인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가 TIMer로서 얻게 된 큰 자부심이고, TIMer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 TIM Church-Planting Training(TCT) : 재생산하는 교회개척훈련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박미선 선교사

##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리서치를 가야 할까요?’ 이 곳은 당신이 예비하신 곳인가요?

TIM Church-Planting Training(이하 TCT)을 시작하며 용인지역 이주민들 전도를 위한 리서치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팀이 전도할 지역을 정할 예정이었다. 기도회를 마친 후 이날은 용인시에서 세 번째로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동읍으로 리서치를 가기로 정하였다. 훈련 받는 이곳 양지 외에는 가 본 곳이 거의 없던 지라 이동읍을 찾아가는 길은 낯설었고,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 지 알 수 없는 막연함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바울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동읍의 송전리라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송전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차로 돌아보자는 의견을 따라 이동하던 중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고,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하였다. 나갈 길을 못 찾아 계속 헤매던 중 조그만 골목길을 따라 나온 길 끝 옆에 있는 교회를 발견한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보기로 했다. 교회 문에 붙여있는 ‘선교하는 교회’ 표어와 외국인들 사진을 본 순간 목사님을 만나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주민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길을 잃었다 생각했던 곳 송전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 송전리로 변화되었고, 전도된 이주민들은 송전양문교회로 연결되어 우리 팀과 연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바울을 생각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아... 이곳엔 아무도(어느 이주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맞을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주민을 찾아 송전리에 왔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며 나의 마음에는 낙심과 의심이 찾아왔다. 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나의 온 신경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었다. 그 곳에는 흑인여성이 아기를 안고 마트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에게 곧장 달려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낮은 나의 이야기에 친근감 있게 반응하며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왁자지껄해 졌다. 분명 5분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한 무리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흑인여성(그녀의 이름은 보이투멜 로이다)을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주민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 나의 시각과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 “주님, 이런 무지개는 처음입니다.”

송전양문교회와 연합하여 ‘송전 외국인 친구 초청잔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이주민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를 상상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였다. 송전리에서 본격적인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전쟁이 찾아왔다.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기간 중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일주일 내내 비와 바람으로 전도도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보다는 평안함이 있었다. 그날도 역시나 많은 비가 왔고 잠시 비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우리는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찬양을 하였다. 그 때 전화가 왔다. “선생님 하늘에 무지개 보이세요? 무지개가 떨어요” 내가 보고 있던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만 있었기에 무지개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내 눈앞에 가득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 앉았다.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림처럼 내 안에 각인되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를 것이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답고 커다란 무지개였다. 드디어 초청잔치 날이 되었고, 우리들은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 송전양문교회 성도님들, 남아프리카와 케냐에서 온 이주민들, TIM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연합의 예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이주민들의 예배만으로 생각했던 나는 그 하나됨의 경이로움에 압도되고 말았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날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정확한 message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 무지개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이번 TCT 교회개척훈련은 3명의 적은 인원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한 이주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개척을 통해 지역교회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 색이 합쳐진 무지개처럼 송전양문교회, 이주민들, TIM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은 앞으로 L국으로 떠나게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처럼 다양한 색깔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란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셨듯이 우리들의 다양함을 통해, 연합을 통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Come and See what God has done,, All the wonders under the Sun “



# MK홈스쿨링 인터뷰

## 여호와가 주신 기업



본부에서

이지혜 선교사 인터뷰  
홍명희 선교사 TIM

2013년 여름, 훈련팀에서 처음 김경찬, 이지혜 선교사 가정을 만났다. 몽골에서 1기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여 훈련팀 스텝으로 섬기고 있을 때다. 이후 이 가정은 건강에 무리수를 두면서도 선교지를 잊지 못하고 다시 초이발산으로 떠났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어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지금은 수술과 재활 및 회복기를 거치면서 TIM본부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지를 무척 좋아했고, 그 곳의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으며, 지금도 현장을 그리워하고 있다. 김경찬, 이지혜 선교사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생활 환경이 선교지가 되었던 혹은 국내가 되었던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홈스쿨을 고집하고 있다. 잦은 이동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자녀교육의 측면에서 최악의 조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확신과 의지를 다지며 변함없이 홈스쿨의 방식으로 세 자녀를 교육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생각하는 MK교육에 대해 묻는다.

63





## Q.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가정은 2007년 파송 받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 D지역에서 온 누리교회가 입양한 B종족선교와 교회개척사역 및 NGO사역을 했어요. 첫째 보라가 생후 4개월을 막 넘기던 때였죠. 이후 소라(2010)와 길(2012)이 태어났고, 현재 보라 초6, 소라 초3, 길은 초1 이에요.

## Q. 홈스쿨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첫 마음은 어떠했나요?

1기 사역을 마치고 다음 2기 지방사역을 준비할 때였어요. 보라가 취학할 나이가 되니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MK스쿨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만 있어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현지학교를 보내자니 현지 문화의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이후 홈스쿨 관련 책도 찾아보고, 기독교부대학 과정도 수강하면서 성경적 양육과 교육의 큰 크림과 뼈대를 잡았어요. 복음전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과 자녀제자화의 책임과 사명감(신명기 6:7-9)으로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64

나름 준비를 해서 그런지 걱정되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개척자의 마음에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TIM 선교사 중 처음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하다 보니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이나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특수상황을 인식하고 홈스쿨이 자기들의 운명인줄 알고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

홈스쿨링 초반, 양가 부모님께서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걱정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전반적인 학습진행을 설명 드렸어요. 정해진 일과에 맞춰 공부하고 활동하는 사진을 보시고, 이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뒤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세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으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Q. 홈스쿨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좋았던 시간과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홈스쿨을 하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으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 자녀들 안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바로 바로 볼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 드러진 가정예배도 홈스쿨링으로 가능했어요. 그 시간은 아이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홈스쿨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점점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의 체계가 잡히면 엄마의 여유시간이 늘어난다고 듣기만 하다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 힘듦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이들과 매일 24시간을 함께할수록 하루 3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 앞에서 저의 죄성이 드러날 때였죠(하나님의 양육방식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며 사과하면 아이들은 항상 쿨하게 용서해주곤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믿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 받는 시간이었어요.

**Q. 지식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학년으로 올라가고 한국의  
교육열을 보시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조바심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나요?**

MK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은 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라 지식적인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것(잠언 9:10)과 영성과 인성의 바탕 위에 지성이 꽃 피워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아이들의 주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자는 결심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 Q. 첫째 보라는 이제 6학년이 되었는데요, 보라는 홈스쿨의 어떤 부분을 만족해하고, 아쉬워하나요?

보라의 적성검사를 했을 때 언어수리영역보다 창의성과 응용력이 높게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곤 하더라고요. 앞으로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자유로운 영혼인 보라에게 홈스쿨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보라도 학교성적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여유시간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해요. 가끔씩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말마다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풀고 와서 괜찮다고 하네요.

### Q. 8살이 된 길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길이는 누나들보다 활동적이어서 그 성향에 맞게 여유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블록으로 갖가지 모양의 배, 비행기, 자동차, 소방차 등을 만들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수학을 좋아해요).

올해 초 길이가 자기 전 질문하기를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죠?” 부활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길이가 심각하게 울고 있더라고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위로하니깐, 이내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평소와는 다른 길이의 진지한 모습에 놀랐고, 또 길이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 Q. 세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은 제게 비타민이자 여호와가 주신 기쁨, 저의 수종의 화살(시편127:4)이죠. 언젠가 대적의 문을 향해 쏠 수 있는 화살이 3개(창세기 22:17)나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피난처를 발견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아 부모세대에 다 마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4차산업의 그 때,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8:11)의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Q. 홈스쿨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이 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의 여러 돌발적인 상황과 유동적인 이동 등이 겹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종종 봐왔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홈스쿨링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스쿨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 안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면서 깊이 체험하고 있어요(예전에 비해 홈스쿨에 대한 세미나도 많고 홈스쿨 커리큘럼도 잘 나와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 홈스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명에 응답하는 제자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자녀를 먼저는 안전한 가정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킨 후 때가 되면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홈스쿨이라고 생각해요.





## 인터뷰를 마치며

수시로 사역지를 이동해야 하고, 더욱이 전방개척을 열어가는 선교사 가정이라면 누구나 자녀교육의 난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양질의 교육환경, 자녀의 성향, 재정적 어려움, 안전의 문제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고민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의 아들은 현지유치원, 현지초등학교, 한국초등학교, 한국MK중학교, 현지중학교과정과 병행한 홈스쿨, 그리고 다시 한국MK특성화고등학교를 거쳐 지금은 한국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교육환경을 다 겪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추억해보면 현지유치원에서 아이는 냉혹한 사회의 경쟁력을 경험했고, 현지초등학교에서 낯선 타인의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재생산하는 능력을 키워냈다. 한국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로울 수 있었고, 한국MK중학교를 다니면서 평생의 우정을 만났다. 홈스쿨을 진행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신감을 키웠고, 한국MK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고독과 싸우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실수한 만큼 자랐고 아픈 만큼 성숙했다. 단언하건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것 같다.

이지혜 선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의 믿음에 공감했고 그 간절한 기도에 동참했다. 모두 알고 있듯이 MK교육에 있어 정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의 '방법'이 아니다. 이지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 MK들의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다.

고민하는 만큼 기도하고 고통스러운 만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고 파란 하늘이 높아져 있듯, 부모선교사도 우리 MK들도 주님의 성품을 체험하며 좀 더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



###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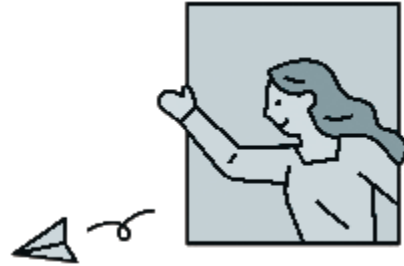
1. 2020년 중학생이 되는 보라의 중학과정의 홈스쿨도 은혜가운데 인도하시도록
2. 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잘 확립되도록
3.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해 나가도록



MK이야기

# 홈스쿨,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김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MK 김보라입니다. 작년에 안식년으로 나왔고 아빠가 본부사역을 하게 되어 한국에서 두 동생(소라10살, 길 8살)과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말로는 제가 태어난 지 3개월만에 몽골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자라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첫 번째 안식년을 보내고 두 번째 몽골사역을 위해 몽골로 갔을 때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제가 조금 큰 8살이었는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모, 할머니와 헤어져서 몽골에 오니 한국이 그리웠어요. 제가 살던 곳에는 한국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 또래의 아이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한국친구가 더 그리웠어요.

어느 날 홈스쿨을 마치고 학원에서 몽골어를 배우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몽골 아이가 “너 한국사람이니?”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 아주 친해졌어요. 한국선교사자녀는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몽골에 친하게 놀 수 있는 친구를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차 다른 몽골친구들과도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도 현지성도님들이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어린이예배도 재미있게 다니고 아웃리치 기간에 한국에서 많은 이모, 삼촌들이 오시고 한국에서 파견되어 온 코िका 언니, 오빠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름에





는 교회사역자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소들을 쫓아가기도 했어요. 몽골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작은 선교사로 몽골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냈어요.

저는 홈스쿨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곳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어요. 특히 주일저녁에 가족의 밤을 가졌는데 그때 동생들과 엄마, 아빠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여유시간이 있는 만큼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에 대해 계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몽골에서 러시아로 비자연장을 위해 가게 되었을 때 아빠가 갑작스럽게 그곳에서 허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고통스러워 하는 아빠 모습, 엄마가 아빠를 간호하고 동생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지금의 저로 성장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동생들과 홈스쿨을 하는 중이고, 소중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하나님은 가족처럼 늘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돌봐 주시는 분이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일반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여유시간이 있는 만큼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에 대해 계발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MK이야기

# MK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다니엘



나는 중국 서북의 N지역에서 태어났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내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때 가끔 실증을 느끼고는 했다. 내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질문임을 알지만 적어도 내게 있어서 이 질문은 실증과 지겨움을 끝없이 맴도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존재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유치원에서는 또래 애들한테 등쳐 먹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쓰라림을 늘 겪어야만 했는데, 이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나는 매일 50명이 넘는 반 아이들에게 주목 받아야 했고, 최선의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만큼 학교 공과가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내 곁에 좋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학교 선생님과 다르게 내가 노력한 과정을 지켜본 부모님은 나를 대견스러워 하셨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중국에서의 선교생활은 우리 가족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부모님이 교회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근 중국을 떠나오시기까지, 각종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보살피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셨던 부모님. 그만큼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내게 고향이 되어버린 곳에서 생활하기를 십 수 년, 나는 점점 그 곳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조미료랑 기름 범벅이 된 음식이나, 건조함을 동반한 2% 부족한 공기, 어렸을 때 만나 함께 해온 친숙한 현지교회 사람들, 그런 세세한 것들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익숙함이었다. 비록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잠시 그 곳을 떠나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나는 그곳을 내 집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다독였다.



##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학교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2학년에 들어서면서 나의 학교생활은 그야말로 절벽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학교생활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1학년 때는 그저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힘들었지만, 2학년에 들어서면서 나의 학교생활은 그야말로 절벽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1차적인 문제는 내가 막 1학년을 마무리 할 때쯤인데 학교 법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온 것이다. 교장과 법인,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한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학년은 졸지에 텅 빈 학교를 메워야 하는 최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학년을 진학하면서 만난 담임 선생님과 충돌이었다. 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충돌을 피하는 타입이었지만, 그 선생님은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 주셨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이 말하는 게 곧 정의라고 하는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는가? 불의를 못 참고 본심을 말해 버린 결과, 나의 대학진로에 큰 걸림돌이 생겨버려 더욱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분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분에게 사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언젠가 그분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파로 나는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학교를 출석 도장 찍듯이 다니고, 모두가 잠든 밤이 오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엄습해와 마음을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부모님이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알려오는 부모님으로 인해 나는 한 번 더 충격 받아야 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 됐다는 듯 너무나 담담히 말이다.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분노였다. 내 집, 내 고향, 내 친구... 항상 낯선 환경에서 살던 내게 유일하게 허락된 익숙함이 없어진다는 건 그리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은 시간에 따라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합리화, 그 다음은 외면, 마

얼마 후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MK는 선교사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삶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픈  
희생은 이 세상에서의  
'내려놓음'이다.



지막엔 공허함으로. 그리고 생각했다. MK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저 모태신앙? 변화와 적응의 삶의 연속?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유별난 생활환경?

MK로 태어나 지금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갈피가 잡혔다. MK는 선교사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삶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픈 희생은 이 세상에서의 '내려놓음'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참고,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여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모아놓은 달란트만큼 그 분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지겹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빼앗겨버린 것만 같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준비가 안 돼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우습지만 나는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 예비반이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두렵다.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 없이 나 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홀로 헤쳐 나가야 돼서. 나는 아직도 내가 MK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다.





본부에서

# TIM 은퇴 간사 인터뷰 선교사들의 작은 쉼터, 선교사 숙소

윤종희 집사 인터뷰 TIM 은퇴 간사  
유진현 간사 TIM본부

74

연방에  
교회를  
세우는  
TIM

본국선교사들이 본국사역을 끝내며 기쁨의 특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나이, 만 60세!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가장으로서 맡겨진 일을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하고, 멋지게 정년을 맞이했던 윤종희 집사님! 그는 정년의 이후의 삶은 본인이 못 이룬 꿈에 도전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TIM 선교사 숙소 담당 간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집안을 청소하며, 관리한다 한들 몸은 고될지언정 크게 표나지 않는 것이 청소요, 정리다. 집 한 채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12년이라는 시간, 30세대가 넘는 선교사 숙소를 관리하는 동안 집사님은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 개인시간 조차 마음 편히 사용 못하고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놓고 수고하며, 모든 시간을 인내한 집사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생 2막, 고됐지만 보람 있었던 12년 순종의 시간에 대해 잠시 들여보고자 한다.

## Q. 지난 12년간 온누리&TIM선교사 숙소를 한결 같은 모습으로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숙소관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1996년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온누리 선교재단에서 11년을 사역했어요. 사역한 지 11년 되던 그 해 겨울, 선교재단 사역장로서 계셨던 홍범식 장로님이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에서 일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셨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상도동에 선교사 숙소를 신축하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중히 거절했는데, 며칠 후 또다시 “윤종희 집사가 선교사 숙소 사역을 맡아주는 건 어떨겠냐” 물으셨죠. 거절하며 돌아서는데 발걸음만큼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11년간 교회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났거든요. 선교사 숙소관리 사역을 두 번이나 제의 받은 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나를 또 부르실까?’ 기도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슴은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온누리교회 본당에 올라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던 중 ‘네가 무엇이란데 그 일을 거절하느냐?’며 주님은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무의미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한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시는데,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곧바로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선교사 숙소관리 사역을 하기로 순종했어요.

## Q. 집사님이 하셨던 선교사 숙소관리 사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TIM 지원관리팀 숙소담당 간사로서, 상도동 선교사 숙소건물의 시설수리, 보수 등 외관 관리와 물품사용관리, 전기, 가스, 고장수리 같은 내관 관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하는 선교사님들이 숙소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입퇴실 시 친절히 모시면서 불편사항 없도록 항상 살폈어요. 선교사 숙소에서 머무시는 선교사님과 MK 중 몸이 아픈 분들은 더



2016년 TIM스텝들과의 리트릿

신경 써서 보살펴 드리면서 중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역했어요.

### Q. 처음 시작하시던 때보다 선교사 인원뿐 아니라 관리해야 할 숙소가 점점 늘어나 관리가 힘들셨을 것 같은데, 숙소관리 사역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때 제일 힘들셨나요?

2008년 1월 상도동 선교사 숙소는 TIM HOUSE라는 이름으로, 12세대가 머물 수 있는 5층 건물 한 채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숙소를 이용하는 선교사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2년쯤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숙소신청을 하면서, 숙소가 넉넉하지 않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경쟁적으로 몇 달 전부터 신청하는 일이 생기는 등 숙소 예약이 점점 어려워 갔어요. 그러던 중 2013년 ONNURI HOUSE라는 이름으로, 17세대가 머물 수 있는 원룸 4층 건물이 생겼고, 서용은 권사님은 이태원 경리단길에 2세대가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관리해야 할 건물과 방이 늘어나면서 신경 쓸 일이 배로 늘어났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이 외출 후 늦은 밤이나 새벽에 귀가 시에 숙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전화주실 때, 제가 다른 일로 숙소를 잠깐 비운 사이 사전 연락 없이 오실 때, 비행기 연착이나 숙소 방문 예정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숙소 도착 예정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고 바로 오셨을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잠시 잠깐 정신적으로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고, 육신이 지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 사역을 한번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 Q. 힘든 시간이 있으면, 보람된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 ‘이 사역을 하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른 새벽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기도 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교사님의 수술 시에는 가족을 대신해서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등 선교사님들과의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매해 겨울 40일 새벽기도를 함께 다녔던 게 기억에 남아요. 서로의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될 때 함께 기뻐했던 시간들! 많은 선교사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기도했던 지난 시간들이 보람되면서, 선교사님들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숙소 관리 사역을 하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 Q.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외로움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각자에게 맡는 일을 주셔서 외로움 틈이 없었어요. 자연을 좋아하고 밭 가꾸기를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남원 지리산부근 아름다운 동산을 주셔서 그곳을 가꾸면서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을 회복시켜주셨고, 딸에게는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2주에 한번씩 남원을 오가며 아내를 돕고 그 안에서 기쁨과 심을 누렸어요. 그래서 더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었고,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없었죠.

77

선교사님들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숙소 관리 사역을 하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2012년 신년을 맞아 스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윤종희 집사님





## Q. 가족분들은 집사님의 은퇴를 반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반기시던가요?

우선 가족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마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 했어요.

아내는 쉬엄쉬엄 지리산 동산을 가꾸면서 함께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반기고, 자녀들은 부모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반겨 했어요.

## Q. 은퇴 후 계획하신 또 다른 사역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리산 동산을 잘 가꾸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간 선교사님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수술하고 회복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편안한 침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 되는 것을 보았어요. 12년을 선교사님들과 동거동락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연을 많이 접하고 만지면서 힐링될까?'를 늘 생각했어요. 현재는 어느 하나 뚜렷하게 실행하고 준비된 것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 지리산 동산이 선교사님들이 잠시 쉬어 가는 곳,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 Q. 후임으로 들어오신 임집사님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겪게 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짊힙니다.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인내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집사님을 만나면서, 집사님을 '선교사님들의 친정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동산! 그곳이 어떻게 꾸며지든 집사님의 사랑이 흠뻑 묻어나 있는 곳일 것만은 확실하다. 그 동산이 지쳐있는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기를 소망한다.



### 기도제목

1. 우리 부부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도록
2. 아내(한연임 권사)의 다리 아픔이 치료되도록
3. 딸(윤지현)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 집사님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 PM 오정민 / 전 TIM간사

윤집사님은 선교사들에게 친절엄마 같고 MK들에게는 외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타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가정이 한국에 와서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선교사를 배려하시고 고된 숙소일을 하시면서도, 때론 몸도 마음도 힘에 부칠 때에도, 간사인 제게는 고충을 나누시지만 선교사님들께는 내색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누가 5리를 가달라 하면 십리를 가주시는 그런 섬김의 종이셨습니다. 온누리선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도 조직도 사람들도 바뀌고 변하지만 십여 년을 묵묵히 섬기신 삶은 생각할 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헌신의 여정입니다. 간사로서 윤집사님과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자 귀한 배움의 기회였음을 고백합니다.

**M미션** 김훈&김향심 선교사

따뜻하고 자상하신 윤집사님!

저희 가족에게 집사님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집이자 가족이었어요.

그 동안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세요!

**바울선교회** 이찬양&이정선 선교사

아버지처럼 챙겨주시던 윤종희 집사님,

한국에 가면 리무진 정류장까지 픽업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 집사님!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먼 아프리카에서 접하였습니다. 그 동안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온누리 하우스 가면 또 뵈 것만 같이 그리울 겁니다. 은퇴하시고 이어지는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본부에서

**TIM 김현석&김은미 선교사**

아프거나 급한 일들로 잠시 귀국해서 들어온 한국길, 언제나 친정아버지처럼 환하게 맞아 주시며 곰살맞게 챙겨주신 우리 윤집사님, 곤란한 이야기는 듣는 우리보다 더 겸연쩍어 하시며 말문을 못 떴었던 마음 어린 우리 윤집사님! 섬김의 영성을 존경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로운 곳에서 더욱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TIM 이철희&원은복 선교사**

모처럼 한국에 방문할 때면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셨던 집사님께서 은퇴를 하신다니 마치 아비를 잃은 것 같은 섭섭함과 슬픔이 찾아오네요.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를 배려하시고 도우시려 때론 이른 아침에, 때론 밤늦게 휴일도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집사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 겸손과 희생,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졌으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길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TIM 이석희&박혜숙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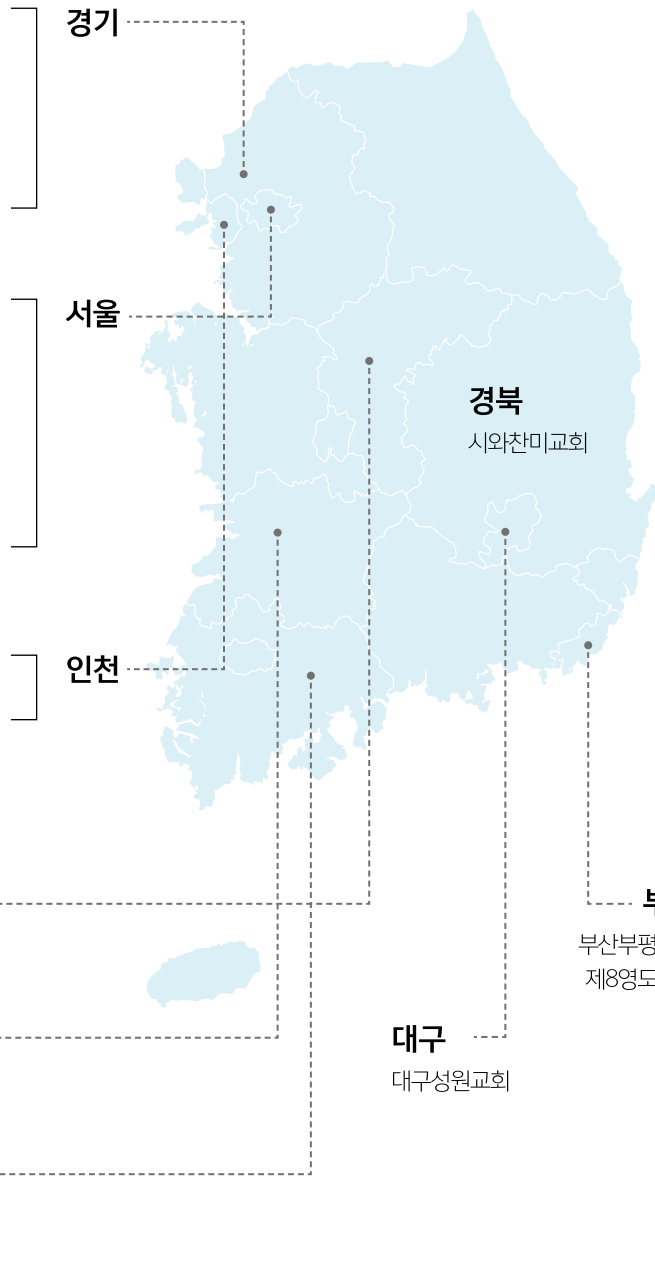
윤종희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올 때 마중 나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때마다 섬김의 수고에 감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집사님의 수고는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혜림교회 진세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그레이스선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라이브교회 강북바른교회 서울성원교회  
소원의향구교회 승복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송림제일감리교회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모스교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tim.or.kr](mailto:tim@tim.or.kr)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